Economy p/5

체크카드 발매 1억장 돌파

metro

메트로 2015년 3월 13일 금요일 제3 74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0

'박정아의 남자' 전상우

너네들은 썩으면 안돼

'부동산투기의혹' 이완구총리 부패와의 전면전 선언

통영함 비리·자원외교 등 MB정권 칼대나

금리 사상최초 1%대
뒤늦게 '돈풀기' 합류

"남자야 여자야" 차이나타운, 김고은

세계유산 남한산성 방문 외국인 대상 해설사 양성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외국인들에게 남한산성의 가치를 설명하고 안내할 원어민으로 구성된 외국인해설사 양성과정 개강식을 11일 열었다.

이번 양성과정 수강생은 성남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연계해 성남시에 거주하고 평소에 남한산성을 사랑하고 역사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중에서 선발됐다.

언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되 한국어에도 능숙한 외국인 10명을 선발했다. 추후 다른 언어 해설사도 추가해 교육할 계획이다.

외국인해설사 양성과정은 총 8강으로 남한산성 문화재를 답사하는 현장교육과 역사 등 이론을 공부하는 실내교육으로 이뤄졌다. 해설사들이 직접 사용할 언어별 해설서도 같이 제작할 예정이다.

향후 외국인해설사 2개월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해설능력 검증을 통과한 사람은 6월부터 남한산성 성곽과 행궁에 배치돼 남한산성 외국어해설사로 활동하게 된다.

센터 관계자는 "국내에서 문화유산을 직접 외국인이 모국어로 해설안내를 하는 사례는 남한산성이 최초로 외국인들에게 더욱 쉽고 가깝게 남한산성을 느끼고 갈 좋은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Training foreign commentator for tourists visiting Nam-Han mountain fortress world heritage.

Kyunggi do culture foundation Nam-Han mountain fortress world heritage center have opened a foreign commentator training course on the 11th to help tourists from other country know the value of this Nam-Han world heritage.

The trainees are connected with Sung Nam Foreign citizen support center and chosen among those living in Sung Nam and who loves and have interest in Nam-Han mountain fortress as well as history. 10 native speakers from the U.S, China and Japan who speak Korean as well are chosen. Commentators of other languages are to be selected in the near future. Foreign commentator trainee course is held inside a classroom and has a total of 8 lectures and the studies include the history and theories regarding Nam-Han mountain fortress, field education and its history. The booklets to be used by the commentators are to be made and published as well. The commentator trainees who have proven their commentating skills after completing 2 month course of Foreign commentator trainee course will be positioned at the fortress and the temporary palace and start officially. This is the first time where native speakers from other countries are commentating and guiding and they are expected to be a good model for everyone to see and enjoy Nam-Han mountain fortress.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제공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金恩), 강사

사면초가에 몰린 IS

이라크군에 티크리트 빼앗겨… 민간인 차타고 도망

이라크군이 탈환 작전 9일만에 티크리트에 진입했다.

1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은 이라크군이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IS)가 장악했던 살라후딘주의 주도 티크리트 시내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미군의 지원 없이 시아파 민병대 중심으로 탈환 탈환 작전을 개시한 지 9일 만이다.

이라크군은 이날 오전 티크리트 시내 카디시아 지역의 주요 거점인 군병원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디시아는 티크리트 도심에서 북쪽으로 7~8㎞ 거리다. 이라크군 관계자는 "IS가 자살폭탄이 아닌 부비트랩과 저격수로 대응해 매우 신중하고 느리게 전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이라크군이 티크리트 남부에서 밀고 올라가 티크리트 내 IS를 남북 양쪽에서 협공했다. 이라크군은 또 티크리트 서쪽 경계 지역인 알주투르의 동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24번 도로상의 알랍교 부근에서 IS와 교전했다. 티크리트 동쪽에는 티그리스강이 흐르는 데다 알랍교 일부도 IS가 시아파 민병대를 막고자 파괴해 IS는 사면초가에 몰린 셈이다.

이라크 경찰 관계자는 AP와의 인터뷰에서 "IS 대원이 민간인의 차를 빼앗아 타고 티크리트에서 도망쳤다"고 말했다.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160㎞ 정도 떨어진 티크리트는 사담 후세인의 고향으로 반정부 성향의 강성 수니파 지역이다. IS가 손에 넣은 이라크 제2도시 모술로 가는 길목으로 지난해 6월 IS에 넘어갔다. 이라크군이 티크리트를 탈환하면 모술과 바그다드를 잇는 요충지를 차지하는 전략적 이득을 얻는 것은 물론 미군의 도움 없이 이라크군 자체 전력으로 거둔 가장 큰 성과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정윤희기자 unique@

화성 정복 '성큼' 11일(현지시간) 미국 유타주 프로몬토리 사막에서 미항공우주국(NASA)과 오비탈 ATK사의 차세대 로켓인 우주발사시스템(SLS)의 첫 엔진 실험 모습을 관계자들이 걸터앉아 서서 카메라로 찍고 있다. /AP 연합뉴스

아까운 인재들이 서바이벌 프로그램 촬영차 아르헨티나까지 갔다가 헬기 추돌로 사망한 프랑스의 유명 운동선수 플로랑스 아르토와 알렉시스 벤스틴, 카미유 무팡트의 추모행사가 프랑스 파리의 국립스포츠인스티튜트에서 11일(현지시간) 열리고 있다. /AP 연합뉴스

'족쇄' 벗은 쿠바 외교무대 재등장

미국 직통전화 16년 만에 재개통…·한국·일본 경제협력 추진

쿠바가 빠르게 외교무대에 재등장하고 있다.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눈앞에 두는 가하면 한국·일본과의 경제협력도 모색중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쿠바 국영 전화회사인 에텍사(ETECSA)와 미국 뉴저지 주 기반의 민영 통신사인 'IDT 도메스틱 텔레콤'이 11일(현지시간) 직통선을 16년 만에 재개설했다.

이에따라 미국 거주자와 쿠바 거주자가 제3국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요금을 들여 직접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수 있게 됐다.

앞서 미국 백악관도 지난해 12월 관계 개선 조치에 쿠바 국민의 통신 접근 확대와 통신 능력 향상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에텍사는 "미국과 쿠바 간 통신선 복구로 양국 국민 모두에 더 나은 인프라스트럭처와 통화 품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계약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지난해 12월 17일 53년간의 적대 관계 종식과 역사적 국교 정상화 추진을 선언한 이후 쿠바와 미국 회사 간에 이뤄진 첫 계약 사례다.

양국을 잇는 전화선은 1959년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으로 정권을 잡고 미국인 소유 회사를 국영화하기 시작한 이래 수차례 막히고 뚫리기를 반복해왔다. 이번 재개통은 특히 1959년 2월 25일 이후 처음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과 쿠바가 인터넷 분야에서도 협력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영상물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는 지난달 쿠바에서 신사업을 개시했다.

◆미 인터넷기업 진출 활발할 듯

일본과의 관계도 빠르게 회복될 조짐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2일 일본을 방문 중인 리카르도 카브리사스 루이스 쿠바 각료회의 부의장과 만나 경제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쿠바 정부 요인의 일본 방문은 2003년 피델 카스트로 당시 국가평의회 의장이 일본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와 회담한 이후 12년 만이다. 14일까지인 카브리사스 부의장의 일본 방문 기간 200여 개 일본 기업이 참가하는 쿠바 투자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이에 맞서 한국 외교부도 쿠바와의 관계 개선 추진을 선언하고 경제·문화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기자 kmkim@metroseoul.co.kr

이완구 '부패와의 전면전' 선포… MB 겨누나

"정부, 모든 역량·권한·수단 총동원"
방산비리 합수단, 전날 '거물 로비스트' 전격 체포
서울중앙지검, 자원외교 비리 '특수부'에 재배당

이완구 국무총리가 12일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오는 17일 취임 한 달을 맞는 자신에게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부패와의 전쟁에서 주력이 될 검찰은 현재 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하는 등 이 총리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특히 검찰은 거물 방산 로비스트인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을 전날 전격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정부 자원외교 고발사건을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재배당하기도 했다. 모두 이명박정부와 무관치 않은 사안들이다. 이로 인해 이 총리의 전면전 선포가 이명박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부정부패 척결이야말로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최우선 책무이며 우리나라의 미래와 명운이 걸린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과제"라며 "이제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드러나고 있는 여러 분야의 비리는 부패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더 이상 늦기 전에 과거부터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부정비리, 비정상적 관행과 적폐 등 우리 사회의 암적인 요소들을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역량과 권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부패와의 전쟁'을 통해 구조적 부패의

이완구 총리 '부패와의 전면전' 선포 이완구(왼쪽)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이 총리는 "최근 드러나는 여러 분야의 비리는 부패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 내겠다"며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을 비롯하여 모든 관련 부처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이날 방위사업비리,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비리 등을 부패의 시작 사례로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전날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은 거물급 로비스트인 이 회장을 체포했다. 2009년 터키에서 공군 전자전 훈련 장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백억대의 돈을 빼돌린 혐의를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 한 관계자는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합수단이 이 회장 수사에 대해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있다"며 "곧 놀랄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산비리 수사에서 큰 성과를 냄으로써 정국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2008년 모범기업인으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2009년 방산비리 수사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지만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 이 같은 점들으로 인해 이명박정부 인사들이 방산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는 일반 범죄를 다루는 형사부에 배당됐던 자원외교 고발사건들을 담당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특수부는 권력형 비리를 전담하는 부서다. 이로 인해 점점 자원에 본격적인 자원외교 수사가 진행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정부를 정조준했다는 평가다. 역시 이 총리의 담화 발표 하루 전에 일어난 일이다. 이 총리가 무작정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하지는 않았다는 방증이다.

반면 이 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언론에 대한 외압와 협박 등 갖가지 도덕적 결점을 드러내 역대 최악의 총리라는 오명을 얻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문제삼아 이 총리의 부패와의 전면전 선포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송병형기자 shoone@metroseoul.co.kr

"하베스트 인수, MB정권 직접 주도"

이명박정부 자원외교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인수를 주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은 12일 "부실 인수 의혹을 낳고 있는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당시 이명박정부 총무비서관의 아들인 김형찬 상무가 근무한 메릴린치 서울지점에서 인수를 주도하고, 성공보수 80억원까지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석유공사가 2009년 10월 작성한 프로젝트 예르메스 인수추진계획을 보면 2009년 10월 22일 국내와 캐나다에서 동시에 거래를 발표하고, 발표는 지식경제부 지관 브리핑 예정으로 명시되어 있었다"며 "이는 정부와 협의가 진행돼 왔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로써 그동안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하베스트사 인수는 메릴린치 본사에서 직접 추진됐다는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진 것"이라며 "사후보고를 받았다던 당시 최경환 지경부 장관의 주장 역시 거짓말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2009년 2월 27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메릴린치 자문제안서에는 실무팀 명단에 '피터 김'이라는 이름이 적혀있다. 피터 김은 김형찬 상무로, 근무 기간 동안 광범위한 경험을 갖고 있는 기업인수합병 전문가로 소개돼 있다. 메릴린치가 하베스트사 인수 후 한국석유공사에 보낸 성공보수 청구서에는 또 서울지점에서 약 80여억원의 성공보수를 청구한 것으로 돼 있다.

위원들은 "그동안 계약서에 미국 메릴린치 실무자인 팀 삭스만이 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지점은 이일과 무관하다고 한 산업부의 입장도 거짓말"이라며 "팀 삭스만은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한 것일뿐 실제 주진 주체는 서울지점"이라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당시 메릴린치 서울지점장이었던 안모씨의 관련 증언도 함께 공개했다. 안씨는 "한국입장에서는 되게 졸답했던 딜이었다. 왜냐면 딜이 끝났는데 감자가 나중에 떠밀 있다가 딜이 됐다고 연락이 왔다"며 "왜 한국(메릴린치 서울지점) 딜인데 어떻게 뉴욕(본사)이나고 뉴욕팀에 빠른 낸 적이 있다. 공을 나눠가 가로채려고 한 것이냐"고 말했다.

위원들은 특히 보고서의 향후 계획에서 '지경부 차관 브리핑 예정'으로 기재돼 가격합의 완료 이전에 당시 지경부에 어떤 식으로든 보고를 했고, 승낙을 받아 지관이 직접 브리핑하기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이에 따라 "이전 대통령과 이명박정권의 실세들이 (하베스트사 인수를) 추진했던 실체가 드러났다"며 "청문회에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송병형기자

자원외교특위 출석한 최경환 부총리 최경환(왼쪽에서 세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자원외교 국조특위 회의에서 박완주 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metro Russia

Metro ищет пот семьи героев-оп

metro Brazil

Buraco nos Jardins completa um mês

상파울루 싱크홀 36만개 골칫거리

상파울루가 지반침하 싱크홀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0일 메트로 브라질에 따르면 상파울루 도심에 생긴 구멍 하나가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싱크홀이 생긴 지는 한 달이 됐지만 당국은 보수를 하지 않고 있다. 궁여지책으로 경고 표시물을 세워놨지만 운고콘처럼 길목 시작의 에 있어 운전자들이 못 보는 경우가 많다. 상파울루 한 시민은 "내 말이 구멍에 빠질 뻔 했다"며 "어느 오토바이 운전자는 구멍으로 추락했고 어떤 자는 바퀴가 끼인 채 움직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도로 위 균열 조사에 따르면 상파울루주에 무려 36만5000개의 싱크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metro France

Le château de Versailles fait la chasse aux "perches à selfie"

베르사유 궁전도 '셀카봉' 금지

프랑스 파리의 베르사유 궁전이 셀카봉을 금지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시작된 박물관 셀카봉 사용 금지가 프랑스까지 건너왔다. 셀카봉을 사용할 경우 관광객이 붐비는 곳에서 사고가 날 수 있으며 작품에 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올해는 루이 14세가 서거한지 30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베르사유 궁전에선 다양한 행사와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궁전과 작품 관리도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궁전측은 관광객들의 가방에서 셀카봉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에 나섰다. 이러한 조치는 베르사유궁을 시작으로 루브르 박물관, 퐁피두센터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metro HongKong

면세점 쇼핑 탓 日 공항 마비시킨 中 여성 관광객

쇼핑에 담닉한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 공항을 마비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메트로 홍콩에 따르면 중국 여성 세 명이 일본 나하공항에서 도쿄로 가는 비행기 환승을 기다리던 중 면세점을 찾아 무단 이탈했다. 이들은 1층 수하물 수취대 쪽으로 간 뒤 2층에 있는 출입금지구역인 출국로비로 무단 진입했다. 공항 측은 이들이 기내반입 금지물품을 소지하거나 다른 승객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을 우려하여 보안검색을 다시 진행했다.

이 때문에 공항 제1터미널에서 국내 항공을 이용하려던 모든 승객들은 다시 보안검색을 받아야했고 1인당 평균 1시간 정도를 낭비하게 됐다. 또한 이 중국 여성들이 정신 없이 돌아다니는 바람에 나하공항은 1시간 이상 봉쇄를 한 뒤에야 다시 정상 운영될 수 있었다.

이날 전국 항공기 5대의 출발이 취소됐고, 23대가 출발이 지연돼 이용객 6300명이 피해를 입었다.

나하공항 경찰 측은 "조사 결과 이들이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려다 실수로 수하물 수취대 쪽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항은 입국자와 출국자의 공간을 분리하고 이용객들이 다른 공간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있다. 또한 대기 로비에서 수하물을 찾으러 갈 때에는 세관의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 수속을 한 뒤 들어갈 수 있게 한다. 멋대로 금지 구역에 진입하면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의 공항 사용 규칙을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사진 속 전쟁영웅 살아있을까

러시아 승전기념일 앞두고 사라진 전쟁용사 찾기 프로젝트 진행

승전기념일(5월9일)을 앞두고 메트로 모스크바와 모스크바 전쟁영광 박물관이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화제다.

일명 '사라진 전쟁용사 찾기 프로젝트'는 대조국전쟁 당시 남겨진 사진을 통해 전쟁에 참여한 숨은 영웅들과 후손들을 찾고 그들의 발자취를 조명해보는 방식이다.

프로젝트 대표 콘스탄틴 딤첸코는 "얼마 전 1941년 7월에 찍은 전쟁용사의 사진 한 장을 입수했다"며 "사진 뒷면에는 레닌그라드 지역 민병대 군사훈련 캠프에서라는 메모도 쓰여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 사진과 메모를 근거로 사진 속 인물이 누구였는지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전쟁용사와 이들의 후손을 찾아내는 일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한 숨은 영웅들을 찾는 값진 일"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속 인물들은 마사로프 부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입대해 캠프에서 함께 훈련을 받았다. 1909년 출생한 아버지 마사로프 바실리 드미트리예비치는 랴잔 주의 농민이었으나 전쟁이 발발하자 1941년 6월 24일 아들과 함께 보병으로 입대했다. 1943년 아버지 바실리 드미트리예비치는 적군에게 포로로 잡혔고 열 달 후 석방됐지만 그 이후의 소식은 알 수 없었다.

딤첸코는 "아들 마사로프에 대해서는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며 "사진을 찍을 당시 14~15세 정도의 소년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가 마사로프라는 성을 사용했을 뿐, 어떤 이름을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그가 지금 살아있다면 88~89세가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딤첸코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전쟁용사의 후손을 찾았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이들을 찾고 전쟁용사들의 숨은 노력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샤 골로브첸코 기자·정리 이국명기자

금리 첫 1%시대…뒤늦게 돈풀기 합류

한은 1.75%로 내려…세계 통화완화 행렬 동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사상 첫 연 1%대에 진입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세계 각국이 추진 중인 통화완화 행렬에 동참, 국내 경기 활성화가 목표지만 실효를 거둘 지는 미지수다.

한국은행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 연 2.00%에서 1.75%로 낮췄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해 8월과 10월 각각 0.25%포인트 내린 후 5개월 만이다.

한은은 금리 인하 배경으로 중국 등 신흥시장 성장세 둔화와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꼽았다.

최근 중국, 인도, 덴마크, 폴란드, 인도네시아, 호주, 터키, 캐나다, 태국 등이 기준금리 인하로 자국의 화폐가치를 낮췄다. 이 때문에 한은은 상대적으로 원화가치가 상승, 수출기업의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영향력 한화도 기준금리 추가 하락을 부추겼다. ECB는 지난 9일부터 월평균 600억 유로(약 72조2238억원) 규모의 국채 매입을 실시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에도 살아나지 않는 내수경제 활성화도 금리 인하의 주 요인이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2% 상승에 그쳤다. 담뱃값 인상 부분을 제외하면 마이너스 수준이다. 공공연 생산의 경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한은의 소비자동향조사에서도 국내 소비자들의 '향후 경기전망' 지수는 지난 2월 87로 6개월 전보다 13% 하락했다.

하지만 이번 금리인하가 국내 경기 회복에 효과를 볼 지는 미지수다.

가장 큰 불안요소는 급증하는 가계부채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1089조원으로 1년새 68조원이 늘어났다.

가계부채는 부동산비수기인 올 2월에도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3조7000억원 늘어 월간 증가폭으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이 기간 주택대출은 지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로 4조2000억원 폭증했다.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되면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는 3%대 초반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돼 가계대출 규모는 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또 풀린 돈이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몰려 전세가와 집값만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올해 중후반으로 예상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하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개시 등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연준이 출구전략을 본격화해 내외 금리차가 확대되면 자본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조형아기자 hta0405@metroseoul.co.kr

지난해 체크카드 발급 1억장 돌파

신용카드는 전년대비 1000만장 줄어

지난해 전국에 발급된 체크카드가 1억장을 뛰어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의 체크카드 활성화 등으로 신용카드 발급 장수는 전년보다 약 1000만장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4년 신용카드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작년 말 신용카드 발급수는 9232만장으로 전년도 말보다 9.5%(971만장) 줄었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회원수 역시 7012만명으로 7.6%(577만명) 줄어들었다. 이는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와 휴면카드 감소,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등이 가인한 것이다.

작년 말 체크카드 발급수는 1억77만장으로 전년말 대비 3.3%(325만장) 증가했다.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의 구매실적이 112조46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78조360억원), 삼성(68조5870억원), 현대(60조5270억원), 농협(58조306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백아란기자

국민은행, PB-영업점 협업모델 전국 확대 국민은행은 전국 22개 PB센터를 활용, 각 PB센터 인근 10개 영업점, 희망 영업점과 협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점 외에도 기업고객 CEO와 임원에 대한 관리를 하는 기업금융점도 PB센터와 협업이 가능하다. /국민은행 제공

market index <12일>

지표	값	변동
코스피	1970.59	(-10.24)
코스닥	625.15	(+6.54)
금리	1.80	(-0.09)
환율	1124.00	(-2.20)

인도네시아 LNG 사업에 NH농협은행 500억 투자

NH농협은행은 12일 "인도네시아 동기 세노로 LNG 사업"에 500억원을 투자하는 등 해외 인프라 사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가스공사가 일본 미쓰비시상사 등과 함께 인도네시아 동부해안에 천연가스 액화 플랜트를 건설해 LNG를 생산·판매하는 투자형 개발 사업이다.

프로젝트는 수출입은행과의 협력으로 이뤄졌으며 수은이 농협은행에 지무보증을 서고 농협은행이 외화유동성을 지원했다.

배영훈 NH농협은행 투자금융부 부장은 "이번 프로젝트 투자를 시작으로 보다 많은 국내 기업이 해외건설사업 수주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1-156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광혁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3
독자센터	(02)721-9801

기준금리 年1%대…똑똑한 재테크는?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연 1%대로 떨어지면서 예금과 펀드 등 소비자들의 재테크 전략도 변화될 전망이다.

12일 한국은행은 이날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2.00%에서 1.75%로 인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소비자는 예·적금 이자 생활자다.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 정기예금의 기본금리까지 연1%대로 내리면 은행의 예·적금만으로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시중은행부터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눈을 넓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제2금융권의 경우 일반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데다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혜택과 안정성까지 함께 얻을 수 있다.

통장 역시 정기예금 금리와 비슷한 수준의 금리를 주는 수시입출금식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대안이 된다. 또 인터넷뱅킹 예·적금이나 펀드 전용 상품을 활용한다면 0.1~0.3%포인트의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재테크도 하나의 방법이다.

증시가 수년째 박스권 흐름을 보이는데다가 금리까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안전'과 '수익률'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내내 '보다' 중박'에 집중하는 것이다.

실제 특정종목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과 연계한 '주가지수연동형'은 만기시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손익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주식 투자 보다 원금손실 위험은 낮고 수익률은 연 5% 중반에서 6% 초반 수준으로 예금 이자보다 높다.

이 때문에 주가지수연동형 상품이나 기업어음(CP), 적립식 펀드 등 중수익을 목표로 하는 상품 위주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짠 뒤 경기흐름은 보며 투자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번 금리 인하로 대출을 빌리는 소비자나 주택시장, 건설, IT, 증권 업종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주식 매매 거래 역시 취득 비용이 감소하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여지가 많아졌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인하로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에 따른 경기부양 기대감과 환율 주가 상승(원화가치 하락)이 예상된다"며 "금리 민감도가 높은 건설, 증권과 더불어 평균 환율 상승에 따른 IT 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아란기자 alive@[illegible]

보험업계 수익성 악화 '고심'

역마진 우려로 생보사 이어 손보사도 인력 감축

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연 2%에서 1.75%로 인하하면서 국내 보험사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역마진' 우려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기준 금리인하를 결정했다. 기준금리가 1%대로 내려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자산 운용 대부분을 국고채·회사채 등으로 운용하고 있어 수익률 악화 가능성이 높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채권 수익률 하락으로 투자이익률이 보험계약자에게 약속한 금리 보다 낮으면 보험사가 벌어들인 돈보다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많은 이자 역마진도 우려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보험사의 보험료적립금 평균 이율은 4.9%다. 반면 운용자산이익률은 4.5%로 평균이율보다 0.4%포인트 낮다.

생보사의 경우 고금리 확정이율 계약의 비중도 높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생보사의 보험료적립금 424조6000억원 중 5% 이상 고금리 확정이율 계약의 비중은 140조6000억원에 달한다.

생보사들은 수익성 악화에 따른 역마진 우려로 지난해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삼성·한화생명이 지난해 각각 1000여명을 구조조정한데 이어 교보생명도 400명의 인력을 줄였다. 미래에셋·에이스·ING생명 등도 인력을 감축했다.

최근에는 손해보험사도 인력감축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MG손해보험은 지난해 12월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30여명의 직원을 줄였다. 메리츠화재도 지난 9일 400여명의 희망퇴직 인원을 확정했다.

이밖에 하이카다이렉트와의 흡수통합이 진행 중인 현대해상도 구조조정설이 돌고 있다.

KB금융에 편입을 앞둔 LIG손해보험의 경우 인력감축설이 돌자 김병헌 사장이 직접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보다 20여년 전 저금리 시대를 맞은 일본의 경우 보험사들이 잇따라 파산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역마진 우려에 대비한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강화와 사업비 규모 축소 등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대학생 장학금 전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12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대학생 113명을 대상으로 장학금 2억4700만원을 지급하는 전달식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수창(가운데) 생보협회 회장과 장학금 수여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제공

SH공사, 도시재생 1조 투자 우려 목소리

SH공사가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에 1조75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나섰다. 지난해 줄인 부채 금액의 대부분을 도시재생 사업에 투입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수익성 담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12일 행정자치부의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 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SH공사는 토지 매각실적 증가로 전년 말 18조3618억원이던 부채규모를 17조1490억원까지 줄였다. 총 1조2128억원을 감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SH공사는 서울시가 2018년까지 1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27개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추가로 1조원 가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뉴타운 해제 관련 갈등 수습만 3년간 해왔지만 아직도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렇게 줄인 부채 금액 1조원 가량이 투자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이다.

SH공사는 1조원 외 별도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재생 리츠를 설립하기로 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공공재원의 투자를 유인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명확한 계획이 없어 투자자들이 나설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SH공사 관계자는 "리츠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규모나 민간자금유치 총 금액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공사채 일변도에서 벗어나 투자처를 늘리자는 의도"라며 "서울도시재생 1조원 투자금액은 그동안 토지 매각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미지 현재 1조원을 확보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양해근 삼성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도시재생 리츠에 관해 "안전성은 높을 것 같지만 수익률 면에서 어떨지 장담할 수 없다"며 "특히 임대주택사업은 땅을 얼마나 저렴하게 사느냐, 땅과 주택의 취지가 어느냐가 관건인데 뉴타운 해제지역 등의 땅을 저렴하게 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학철기자

건설업계, 미착공PF 부실 털기 한창

분양시장 훈풍에 묶여뒀던 사업장 공급 잇달아

미착공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축소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분양시장이 호황일 때 묶여뒀던 미착공PF 사업장을 털어냄으로써 부실의 뇌관을 제거하겠다는 것. 특히 해외 손실 반영이 마무리 단계인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이 적극적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올해 3개 사업장에서 총 6305억원의 미착공PF 프로젝트를 착공PF로 전환한다. 경기도 평택 세교지구에서 2309억원, 광주 태전5지구와 6지구에서 3796억원이다.

GS건설은 업계 최대 수준인 1만23가구의 미착공PF아파트를 분양한다. 이에 따른 감축액은 평택 진위동서1·2지구가 1929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 오산동 1100억원 ▲고양 식사2지구 469억원 ▲김포 한강센트럴2차 259억원 순이다.

이 외에도 대우건설이 천안 성성(1450억원), 평택 용죽(161억원), 울산 신천(20억원) 등 3곳에서, 대림산업이 포항 장성(570억원) 1곳에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착공PF 사업지 대부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착공이 지연된 곳들로, 이자와 세금 등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태다. 분양시장이 호황인 지금 이들 사업장을 정리하지 못하면 건설사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떠안고 갈 수밖에 없는 셈이다.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건설사들이 분양시장 회복세에 맞춰 적극적으로 미착공PF 사업장을 착공 전환하고 있다"며 "올해 말 업계별 미착공PF 잔액은 2014년 말과 비교해 최대 68%까지 축소돼 1조원 이하로 축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착공PF 사업장의 착공 전환에 따른 대출 부담 감소와는 별개로 수익성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과거 일부 건설사들은 미착공PF를 착공 전환하면서 40%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몇 년간 누적된 금융비용, 세금 등이 수익을 갉아먹은 것.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시장 침체로 사업을 미룬 프로젝트도 있지만 애초에 비싼 땅값 때문에 사업성 자체가 없어 분양을 못한 곳들도 있다"며 "미착공PF 자체가 사업을 하더라도 수익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고, 미분양 발생으로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psok@[illegible]

'함께'의 힘은
'혼자'보다 강하기에…
함께의 힘은
패배를 승리로 이끌고
불가능를 가능케 하고
포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듯
농협 그 하나의 이름으로
농업인과 국민 행복시대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의 힘-NH농협
NH 농협

12월 결산 상장사 실질주주 442만명

12월 결산 상장사의 실질주주가 442만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의 주식투자자 1626만명 중에서 중복 주주를 뺀 실질주주가 모두 442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39만명(8.1%) 줄어든 수준이다.

실질주주 442만명 중 개인 주주가 437만명으로 98.9%를 차지했고 법인주주(1만9000명, 0.4%), 외국인주주(1만6000명, 0.4%) 등 순으로 많았다.

보유주식 수는 개인 주주 267억주(48.4%), 법인주주 210억주(38.2%), 외국인 주주 72억주(13.0%) 등이다.

유가증권시장은 법인 주주가 153억주(45.3%)로 절반 가까이에 이르고 코스닥시장에선 141억주를 보유한 개인주주 비중이 66.9%로 가장 높다.

실질주주 1인당 평균 보유주식 수는 법인주주 111만주, 외국인주주 46만주, 개인주주 6000주 등 순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선 기아자동차의 실질주주가 19만3699명으로 가장 많고, 코스닥 상장사 중에선 SK브로드밴드의 실질주주가 6만5670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개인 실질주주는 남성이 59.5%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서울(30.8%)과 경기도(21.6%)가 절반을 넘었다.

1개 종목을 보유한 실질주주는 198만명으로 44.9% 수준이며 10개 미만 종목의 주식을 보유한 실질주주는 417만명으로 94.4%에 달했다.

코스닥 열기, 모바일 거래가 '주도'

하루평균 거래대금 3조…모바일 비중 4분의 1

올해 코스닥시장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면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거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코스닥시장이 상대적으로 개인 비중이 높고, 변동성이 크다"면서 "이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모바일 거래가 더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닥시장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2조9866억원으로, 지난 2012년 2월 2조9902억원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2월 1조6516억원과 비교하면 80.8% 급증한 규모다.

코스닥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지난해 12월 2조1000억원, 지난 1월 2조8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달 들어서도 이들에 한 번꼴로 하루평균 거래대금이 3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코스닥시장은 최근 시가총액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조짐세를 나타냈다.

코스닥 열기와 함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무선단말기를 이용한 거래대금도 급증했다. 코스닥시장에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활용한 무선단말 거래 비중은 23%를 웃돌고 있다.

무선단말 거래대금 비중은 지난해 12월 23.27%로 처음 23%를 돌파했다. 올해 1월에는 22.66%, 지난달에는 23.06%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코스닥시장 거래대금 합계에서 무선단말을 이용한 매수약과 매도액의 평균값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집계됐다.

무선단말 거래 비중은 지난 2009년말 2.86%, 2010년말 5.85%, 2011년말 11.76%, 2012년말 15.50%, 2013년말 18.96% 등으로 가파르게 확대됐다.

유가증권시장도 무선단말 비중이 커지는 추세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에는 크게 못 미쳤다.

유가증권시장의 모바일 거래 비중은 지난달 13.4%로 처음 13%대를 기록했다. 앞서 2013년말에는 9.15%였으며 지난해 말에는 12.57%였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회전율은 198.38%였으며 코스닥시장 회전율은 390.51%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 주식 1주당 약 2번, 코스닥시장에서는 약 4번 매매가 이뤄진 셈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대중적으로 보급되면서 모바일 거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최근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모바일 거래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NH투자증권, 핀테크 기업 '토마토파트너'와 MOU 체결 NH투자증권이 핀테크 기업인 토마토파트너의 다각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해 도입 가능한 금융서비스의 검토와 그 수행에 필요한 업무 협조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NH투자증권 제공

고객이 뽑은 올 유망업종 1위는 '전기전자'

신한금융투자는 온라인 고객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5년 최고 유망업종' 설문조사 결과 '전기·전자'가 1위로 뽑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신한금융투자가 1월부터 두 달 동안 홈페이지(www.shinhaninvest.com), HTS, MTS를 통해 진행한 '시작이 반이다' 이벤트 중 유망업종 선정 결과다. 유망업종 선택 이벤트에 참여한 응답자 전체의 18%가 올해 유망업종으로 '전기·전자'를 선택했다.

화학과 서비스업이 각각 14%로 그 뒤를 이었으며 철강 및 금속, 전기가스업, 음식료품을 유망업종으로 선택한 고객은 각각 3%에 그쳤다.

내수주 보다는 수출주,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대한 증권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반영한 결과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고객이 선정한 최고 유망업종인 '전기·전자'의 2015년 상승률은 7%로 (11일 종가 기준) 종합주가지수 상승률(0.9%) 대비 6.1%p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한편 신한금융투자는 2015년 전망 발표에서 올해 하반기 미국과 유럽의 경기 개선 기대와 원·달러 환율의 상승(원화 절하) 압력 등을 감안할 때 대외 수출비중이 높은 대형 경기민감 업종의 실적 성장을 전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지기자

신한금융투자, 대치센트레빌지점 투자설명회

신한금융투자 대치센트레빌지점(지점장 장무일)이 오는 18일 오후 4시부터 대치센트레빌 지점에서 투자세미나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투자세미나는 '국내시장 전망과 후강퉁 이후 중국시장 투자전략'을 주제로, 투자분석부 이선엽 연구위원과 대치센트레빌지점 김성용 PB가 1, 2부로 나눠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지점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되고, 증권투자에 관심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문의 신한금융투자 대치센트레빌지점 (02-554-2878)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 "고객수익률 위해 다 바꿨다"

윤용암(사진) 삼성증권 사장은 12일 "회사 경영을 고객수익률 중심으로 모두 바꾸겠다"고 밝혔다.

윤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경영 방침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증권업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고객 신뢰의 위기"라면서 "고객 신뢰 없이는 회사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무신불립'을 회사의 가장 중요한 경영방침으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삼성증권은 "이를 위해 우선 프라이빗뱅커(PB) 등 영업조직의 평가보상제도를 완전히 고객수익률 중심으로 뜯어고쳤다"고 설명했다.

고객수익률 중심의 '전진배출' 기준을 도입해 고객 손실이 과대하거나, 잦은 매매로 고마진이 발생하거나 특정 자산에 편중돼 투자될 경우 이런 부분은 해당 영업조직의 실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각 영업조직 평가를 위한 핵심성과지표(KPI)에도 고객수익률 관련 항목을 직접평가 30%, 간접평가 15% 등 거의 절반 수준까지 반영하기로 했다.

윤 사장은 "고객수익률이 각 PB 등의 성과에 그대로 반영되고, 본사의 상품별 담당 부서들도 고객수익률로 KPI 관리를 받도록 해서 목숨 걸고 고객수익률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사장은 이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경기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다"며 "예금보다 주식이 유망하다는 투자자가 늘어 증시 유입 자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민지기자 minji@

구본무 R&D 인재 파격 보상

원천기술 확보 집중… R&D 투자 6조3000억원 투입

구본무(사진) LG그룹 회장이 또다시 연구개발(R&D)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한 인재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실시했다.

구 회장은 1995년 럭키금성에서 LG로 CI를 변경하고 당시 취임사에서 "혁신기반을 토대로 제2의 혁신을 본격화하고, 정도 경영으로 고객·사원·주주·사회를 만족시키는 초우량 LG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현재 구 회장은 과거 임직원과의 약속을 지키며 리더로서의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혁신을 이뤄어 낸 직원에게는 파격적인 보상으로 독려하고 R&D 인재 육성에는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로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LG는 LG연구개발상 수상팀의 R&D 책임자 7명과 여성 인재 4명을 포함한 R&D 전문직 인재 46명을 임원급 연구·전문위원으로 선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임원급 보상과 대우를 받고 R&D 활동을 수행해 탁월한 성과를 낼 경우 사장급으로도 승진할 수 있다고 LG는 설명했다.

계열사별로는 LG전자 28명, LG디스플레이 6명, LG이노텍 2명, LG화학 8명, LG하우시스 1명, LG생명과학 1명이다.

연구위원으로는 주력사업 분야의 제품 차별화에 이바지한 R&D 인재와 자동차부품·배터리재료·무기소재 등 미래 성장분야 R&D 인재 등 35명이 승진했다.

전문위원으로는 생산기술·특허·품질·IT 분야 전문가 11명이 선임됐다. LG의 전체 연구·전문위원 규모는 370여 명이다.

또 이날 LG는 시장을 선도할 성과 창출을 위해 올해 R&D에 6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최근 4년간 LG그룹의 R&D 투자 규모는 2012년 4조8000억원, 2013년 5조4000억원, 2014년 5조9000억원으로 매마다 4000억~6000억원씩 증액됐다.

융·복합과 차세대 성장사업을 위한 R&D 투자 부문은 ▲전기차 배터리 등 차세대 자동차부품 기술 ▲ESS(에너지저장장치)·스마트마이크로그리드 등 에너지솔루션 기술 ▲플렉서블·접더블·투명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차세대 소재 원천기술 ▲스마트폰 등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이다.

LG그룹은 올해 국내 최대 연구단지인 마곡 LG사이언스파크 건립에도 약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날 구 회장은 "산업 간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이 일상화 되면서 기존의 완제품 개발 역량에 더해 소재와 부품 개발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 발 앞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한 차원 높은 연구개발과 무엇보다 남들이 넘볼 수 없는 경쟁력을 갖춘 원천기술 개발에 혼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에서 TV의 방송되는 영상을 시청 할 수 있는 모바일 세컨TV 기능을 포함해 음성인식, '스크린미러링' 등 삼성 퀵스 등 스마트 TV의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2015년형 스마트 셋톱박스를 공개했다.

삼성전자 KCTA2015서 최신 UHD 기술 선보여

삼성전자가 12일부터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는 디지털 방송 전시회 'KCTA 2015'에 참가해 초고화질(UHD) 기술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KCTA(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 2015에서 케이블 TV 공동 UHD 채널을 운영하는 홈초이스와 함께 HDR 기술이 적용된 UHD 영상 '도시 재발견 스마트 시티' 다큐멘터리를 SUHD TV를 통해 선보였다.

차세대 UHD 영상의 핵심 기술인 HDR을 영상에 적용, 밝기를 높이고 명암비를 대폭 향상시켜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실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표현했다는 설명이다.

또 UHD 방송 대중화를 위해 CJ헬로비전, 현대HCN, 티브로드 등 국내 케이블 사업자들과 협업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UHD케이블 셋톱박스도 선보였다.

이 외에도 스마트폰에서 TV에 방송되는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모바일 세컨TV 기능, 음성인식, 삼성 퀵스 등이 적용된 2015년형 스마트 셋톱박스도 전시했다.

김석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전무는 "UHD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국내 관련 기업들과 함께 기술력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LG, 무선 진공청소기 등 라인업 확대

LG전자가 더 작은 사이즈의 무선 진공청소기와 새로운 색상의 블루투스 헤드셋을 출시했다.

LG전자는 무선 진공청소기 '코드제로 싸이킹'에 이어 '코드제로 싸이킹 컴팩트형(사진 오른쪽)' 3종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LG전자에 따르면 LG 코드제로 싸이킹 컴팩트형은 30㎝도 되지 않는 폭과 높이, 5.4㎏의 초경량 사이즈를 구현, 청소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뿐만 아니라 유선형 디자인을 통해 청소 시 발생할 수 있는 제품 긁힘을 최소화했다. 스파클 실버, 스파클 레드, 스파클 블루 등 3가지 색상을 적용, 제품 선택의 폭을 넓혔다. 스마트 인버터 모터, 리튬 이온 배터리, H13급 4중 헤파필터 등 LG 코드제로만의 핵심기술을 모두 구현하면서도 오토무빙 등 프리미엄 기능을 빼 가격부담을 낮췄다. 가격은 출하가 기준 65만~70만원대다.

이날 LG전자는 블루투스 헤드셋 'LG 톤 플러스 (왼쪽)'의 화이트 색상도 추가로 출시했다. LG 톤 플러스는 LG전자가 세계적인 오디오 명품 브랜드 하만카돈과 공동 개발한 넥밴드 디자인의 블루투스 헤드셋이다. 와이어 공박(Retractable Wire Management)을 이용한 자동 줄감기 기능을 적용해 제품 사용 중 줄이 엉키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폰에 연결된 선을 제품 본체 안에 쥐어 넣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격은 16만9000원.

/정혜인기자 hjung0414@

오페라 제작 과정 보세요 12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국립오페라단 주최로 진행되는 안드레아 세니에 오페라 공연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삼성 SUHD TV를 통해 세계적인 오페라 공연의 제작 과정을 담은 영상을 감상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 스마트카메라 NX500 출시

삼성전자가 4K 동영상 촬영을 지원하는 고성능 미러리스 카메라 NX500을 12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지난달 유럽 시장에 공개된 후 다양한 기능으로 호평 받은 제품이다. NX500은 2820만 고화소 APS-C CMOS 이미지 센서에 BSI 방식을 적용해 야간이나 어두운 실내 환경에서 더욱 선명하고 정확한 촬영을 할 수 있다. 삼성전자 독자 기술력으로 단생한 이미징 프로세서 DRIMe Vs를 탑재해 최상의 화질을 구현하고 이미지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르다. 4K UHD급의 동영상 촬영을 지원한다. 패스트/슬로우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며, 인터벌 촬영 기능을 활용한 UHD 타임랩스 동영상 제작도 가능하다.

NX500은 화이트, 블랙, 브라운 색상으로 출시되며 16-50㎜ F3.5-F5.6 전동줌 렌즈 포함 89만9000원이다. /양성운기자

삼성전자 신제품 미러리스 스마트카메라 NX500.

탁월한 정숙성… 달릴 때 달릴 줄 아는 車

시승기

더 뉴 인피니티 Q70

"더 뉴 인피니티 Q70(이하 Q70)은 기존 오감에 공감과 영감까지 7감을 만족시키는 차입니다. 새로운 보스 오디오 시스템과 퍼퓸디퓨저가 나오는 첨단 공조장치를 통해 즐거운 드라이빙을 선사할 것입니다."

카쿠지 타케히코 한국닛산 대표이사는 시승에 앞서 이같이 말하며 Q70의 경쟁차종으로 아우디 A6와 BMW 5시리즈,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를 꼽았다.

10일 제주 본태박물관에서 한경해안로와 고먹해안로를 지나 롯데호텔까지 약 67km의 도로를 Q70을 타고 달렸다.

탑승한 차량은 가솔린 최상위 트림인 3.7 익스클루시브 모델이다.

우선 일반 모드로 주행했다.

사측의 설명대로 잔진동이나 소음이 거의 느껴지지 않으면서 높은 정숙도를 유지했다.

Q70은 차량의 소음과 진동 및 충격 감소를 통한 운전자와 동승자의 승차감 향상에 주력했다.

방음과 방진재, 흡음재와 진동흡수재 등을 차체 곳곳에 추가적으로 보완했다.

새로운 고감성 휠을 적용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감소시켰다.

또 전·후륜 쇽업소버의 밸브 포스 최적화로 승차감을 개선했고, 댐퍼 내부의 오일 씰 형상 변경을 통해 잔진동 흡수 능력을 향상시켰다.

운전을 하다 보니 문득 앞에서 불어오는 미미한 바람의 존재가 인지됐다.

도쿄과학대와 공동연구로 개발된 '포레스트 에어 시스템'이다.

이는 차량에 내장된 센서를 통해 실내의 온도뿐 아니라 풍량, 냄새, 습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실내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기술이다.

퍼퓸디퓨저 향유돼 삼림욕을 할 때와 같은 쾌적한 향을 낸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새차의 그런지 삼림욕까지는 아니었지만 확실히 다른 새차를 탔을 때 머리가 어뜰 정도로 나는 특유의 합성가죽 냄새는 덜했다.

앞에서 불어오는 잔들바람은 피부에 닿을 듯 말 듯 부드럽게 인지됐다.

해안로로 접어들면서 스포츠 모드로 변경했다.

속도와 비례해 엔진음이 듀얼 흡배기 구조로 '그르렁' 거는 소리를 내며 커졌다.

급가속을 하니 차체 무게가 뒤로 쏠리며 치체 앞이 지고 나갔다.

Q70 3.7은 워즈오토월느 세계 10대 엔진 최다수상(14회 연속)을 한 3.7리터 VQ엔진을 탑재했다.

6기통 3.7리터 VQ37VHR 엔진은 최고출력 333/7000(ps/rpm), 최대토크 37/5200(kg.m/rpm)의 힘을 낸다.

70kg대 성인남성 2명을 태우고 200km/h의 속도를 내는데 무리가 없었다.

다만 도로가 울퉁불퉁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고속 주행에서 차체가 바닥으로 가라앉지 않고 가볍게 뜨는 감이 들었다.

핸들이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고 좌우로 흔들리는 현상도 있었다.

이날은 마침 눈이 와 스노우 모드도 시험해봤다.

Q70은 스탠더드, 스포츠, 스노우, 에코 등 4가지 주행 모드가 있는데 7단 자동변속기 뒤로 있는 로터리 스위치를 돌려 선택할 수 있다.

스노우 모드로 변경하니 차체가 육직하게 무게 중심을 잡으며 곡선 코스에서의 좌우 쏠림 현상이 저감됐다.

에코 모드에서 오토 스톱 기능은 없었다.

Q70의 또 다른 주력 사안인 오디오 시스템을 가동해봤다.

가요와 팝송 등은 앞쪽에서 나오다가 클래식이 나오자 소리가 뒤편에서 전달됐다.

볼륨을 높이니 차량 사방에 달린 10개의 스피커가 5.1 서라운드를 만들어냈다.

Q70에는 오디오 작동 시마다 외부 소음의 정도와 주파수를 마이크가 감지해 역주파를 발생해 소음을 상쇄시켜주는 '오디오 파일럿 2' 기술이 적용돼 깨끗한 음질을 구현한다.

급가속과 급제동을 반복하며 달려 롯데호텔에 도착하니 7km/ℓ대 연비가 나왔다.

이 차의 공인 복합연비는 8.8km/ℓ다.

기본에 충실하며 주행 정숙성을 확보한 Q70의 부가세 포함 가격은 △3.0d 6220만원 △3.7 스타일 5750만원, 프리미엄 6155만원, 익스클루시브 6940만원 △3.7 AWD 6500만원이다.

/제주=이혜민기자 ramon@metroseoul.co.kr

한화 신입·인턴 500명 채용

한화그룹 채용사이트 '한화인' 오픈이미지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은 올해 상반기 채용 일정을 12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채용 일정은 한화첨단소재(18일~27일)를 시작으로 한화호텔앤드리조트㈜(23일~4월3일), 한화케미칼(3월23~4월5일 예정), 한화생명(4월1~15일) 등으로 이어진다.

㈜한화/방산, ㈜한화/무역, ㈜한화/기계, 한화건설, 한화S&C 등 각 계열사에서 상반기 대졸 신입·인턴 500명을 채용한다.

취업을 원하는 지원자들은 채용사이트 '한화in'을 통해 업시지원서를 접수해야 하며 계열사별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2013년부터 인적성검사를 없앤 한화그룹은 채용전형에서 서류전형과 심층면접으로 신입사원을 선발한다.

학력, 학점 등의 스펙이 아닌 경력, 경험 등 직무적성을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한다고 사측은 전했다.

이날 한화그룹은 기존의 채용사이트를 새롭게 개편한 인재 채용사이트 '한화in'을 개설했다.

한화in의 특징은 계열사별로 다양한 일정으로 각각 채용진행을 함에 따라 취업희망자 중심의 편의성과 우수인재발굴을 위한 언제든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원자는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회사에 입사지원하고, 회사는 최선의 인재를 발굴할 수 있게 업시지원 콘텐츠와 평가시스템도 마련했다.

/이혜민기자

기아차, 강성도 디자이너와 K3 드리프트 청바지 협업

기존 클러치백, 청바지 등으로 탄생돼 판매를 예정이다.

기아자동차는 차를 활용해 청바지를 만드는 'K3 로드진(Road Jean)'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K3 로드진 프로젝트는 차량 주행로에 가로 40m, 세로 60m의 데님 원단을 깔아놓고 이 위를 기아차 준중형 세단 K3로 수행하면서 드리프트 등의 기술로 표면에 미끌을 가해 원단을 워싱하는 프로젝트다.

K3의 주행을 통해 워싱된 데님원단은 강성도 디자이너의 손길을 거쳐 클러치백, 청바지 등으로 탄생돼 판매를 예정이다.

기아차는 이달 K3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한정판 데님 클러치백을 제공한다.

또 온라인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35명에게 강 디자이너가 제작한 청바지를 제공한다.

온라인 이벤트에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4월 5일까지 디자인드 바이 케이 캠페인 웹사이트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4월 13일이다.

/이혜민기자

효성, 마포 본사에 직장 어린이집 개원

효성은 12일 이상운 부회장(왼쪽 두번째), 정철 의 지원본부장, 푸르니보육지원재단 김은기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마포 본사 4층에 어린이집 개원식을 열고 현판식을 가졌다. /효성 제공

"워킹맘의 자녀 보육 부담 덜고 역량 펼칠 수 있길"

효성이 워킹맘의 육아부담을 덜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돕기 위해 '효성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현판제막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현판제막식에는 원아 학부모를 비롯, 효성 이상운 부회장과 푸르니 보육지원재단 김은기 상무가 참석했다.

효성에 따르면 효성 어린이집은 마포 본사 4층에 보육실을 포함해 244.62㎡ 규모로 마련됐으며 정원은 40명이다. 워킹맘들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8시까지 원아들의 보육을 책임질 예정이다. 또한 전문 위탁업체인 '푸르니 보육지원재단'의 우수한 교사들이 제공하는 질 높은 보육이 이뤄진다.

2살 아들과 함께 출근한 효성 박재연 대리는 "믿고 맡길 수 있는 회사 어린이집이 생겨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회사 어린이집 덕분에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가정과 회사 생활을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운 부회장은 "아이들이 밝은 미소로 아이들과 즐겁게 출근할 수 있게 돼 회사 분위기도 밝아지는 것 같다"며 "능력 있는 여직원들이 자녀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회사에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소리기자 liti@metroseoul.co.kr

아시아나항공, '서울에어' 비상

두 번째 저가항공…에어부산 주주는 반대

김수천(사진) 아시아나항공 사장이 두 번째 저가항공사(LCC) 서울에어(가칭)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아시아나항공 관계사에 따르면 지난주 10여 명으로 구성된 서울에어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졌다. 이에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1일 정기 임원인사에서 류광희 아시아나항공 전무를 서울에어 초대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선임했다. 서울에어는 에어부산에 이은 아시아나항공의 두 번째 LCC로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수천, '에어부산'으로 재미 봤다

아시아나항공의 첫 LCC인 에어부산의 성장세는 가파르다. 올해 1월 기준 국내선 여객점유율은 11%가 넘는다. 승객수는 작년 동기대비 12.5%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에어부산의 거점인 김해국제공항은 전체 여용객 중 35%가 에어부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34%)보다 이용률이 높다.

에어부산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05억원으로 전년 대비 294% 증가했다. 매출액은 351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 늘어났다. 아시아나항공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1.97% 성장한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폭풍성장이다.

LCC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LCC의 여객점유율은 10% 안팎으로 미주·유럽 등의 LCC 점유율이 40%임을 감안하면 아직도 4배 더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어'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이지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조기에는 인력, 고객 유치트 판관비 증가가 예상되나 장기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단거리노선 경쟁력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에어 설립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 역시 "구체적인 취항 노선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아시아나항공의 일부 비수익노선인 일본, 동남아 등을 서울에어가 대체하는 방향으로 되는 중"이라며 경영효율성을 강조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국내선 1년 이상, 1만 편 이상 무사망 사고'로 신규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서울에어의 국제선 취항이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에어부산 주주들의 서울에어 설립 반대도 장애물이다. 현재 일부 에어부산 주주들은 서울에어가 에어부산의 사업영역을 잠식할 것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에어부산 측은 "30일 열리는 주총에서 서울에어와 관련한 안건은 논의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지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KT, 대용량 데이터 번개 전송 '유클라우드 SSD볼륨' 출시

KT는 올해 유클라우드 비즈 이용 고객이 대용량 데이터를 기존보다 최대 6배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유클라우드 SSD 볼륨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SSD volume 서비스는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 장치를 기존 디스크(HDD)에서 반도체 메모리가 탑재된 고성능 SSD(solid State Drive) 디스크로 고객이 원하는 만큼 나눠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다.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데이터 저장장치를 SSD로 부분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데이터 처리 속도가 최소 2배에서 6배까지 빨라져 업무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SSD 서비스는 그간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구입 운영 비용으로 많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KT는 국내 최초로, 고객들이 필요할 때마다 SSD 서비스를 Volume 단위로 추가할 수 있는 온디맨드(On-Demand) 형태로 출시했다.

또한 유클라우드 비즈 SSD volume 서비스는 데이터 저장 용량과 처리 속도에 따라 글로벌 경쟁사 대비 2~3배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해 기업고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였다.

이로써 고객들은 국내 클라우드 시장 1위인 유클라우드 비즈의 독보적인 안정성과 보안성에 더해, 경제적인 가격으로 유클라우드 SSD volume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유선준기자 rusunjun@

'3밴드 LTE-A 상용화' 10억대 소송전

KT, SKT 상대 손해배상 청구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논란을 둘러싼 이동통신업계의 분쟁이 결국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졌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KT는 "SK텔레콤이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허위 광고를 방송해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며 11일 SK텔레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T 측은 SK텔레콤의 부당광고·부정경쟁 행위에 따른 시장점유율 매출·영업이익 손실, 사회적 명예·신용 훼손, 광고 효과 반감 등을 종합한 손실액을 200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를 소송가액으로 정했다.

KT 관계자는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이동통신 환경을 고려할 때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는 사업자들 간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라며 "KT가 입은 영업·브랜드 이미지 손실 등을 고려할 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작년 12월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발표한 뒤 올해 1월 9일부터 이를 홍보하는 광고를 내보냈다.

이에 비슷한 시기 해당 기술의 최초 상용서비스를 준비하던 KT는 "정식 출시되지 않은 시험용 단말기로 100명의 고객체험단에 서비스하는 것을 상용화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상용화'의 의미를 "최종 검수가 완료된 정식 단말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SK텔레콤의 광고가 허위 과장광고라는 KT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은 현재 3밴드 LTE-A 관련 TV·지면·옥외 광고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유선준기자

KT, M모바일 유심·가입비 면제 이벤트

KT 그룹사 KT IS가 운영하는 알뜰폰 사업자 M 모바일은 약정없는 LTE43 음성무한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 유심비와 가입비를 면제해주고, 자전거 교통카드 등의 경품을 선물하는 '음성무한 요금제 환승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약정없는 LTE43 음성무한 요금제는 쓰던 폰에 유심만 교체해 사용하는 USIM 요금제로 월 4만3000원에 유·무선 음성, 문자 무제한, 데이터 5GB(이월 가능)를 약정기간 설정없이 이용할 수 있다. 평소 음성 통화량이 많아 5만원 이상의 요금을 내는 고객이나 3~4만원대 요금제를 쓰며 음성 무제한이 필요한 고객, 매월 데이터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아 다음달로 이월이 필요한 고객들이 쓰기에 알맞은 요금제다.

실제 이동통신사의 6만원대의 음성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M 모바일 LTE43 요금제로 바꿀 경우 최대 38%까지(무약정 기준)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 평소 3, 4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하고 무료 통화 제공량이 부족해 매달 추가 요금을 걱정하는 고객이라면 LTE43 요금제의 비교해 선택하면 된다. 음성, 문자 무제한 제공에 데이터를 5GB 제공하며 특히 다음 달로 남은 데이터 이월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KT IS는 환승 이벤트 기간 동안 LTE43 음성무한 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자전거, 교통카드, 아웃백 식사권, 롯데리아 버거세트를 제공한다. 음성무한 요금제 환승 이벤트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된다.

/유선준기자

LG유플러스, 인터넷 가입없는 단독 IPTV 출시

LG유플러스는 인터넷을 가입하지 않고도 실시간 방송과 VOD 등 IPTV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U+ tv G 단독' 상품을 16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IPTV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인터넷도 함께 가입해야 했던 고객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U+ tv G 단독 서비스는 인터넷 가입 없이도 기존 4K UHD(초고해상도)화질과 아이폰TV, my4채널,

보이스리모콘 등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또 120W 출력의 서라운드 입체 음향을 제공하는 우퍼(woofer), 국내 독점제공인 왕좌의 게임 등 571편의 HBO 미드 VOD 등 주요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129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약 12만여 편의 VOD를 제공하는 U+ tv G 요금제를 기준으로 월 1만1900원(3년약정·VAT별도)이다.

인터넷과 IPTV의 결합상품 이용금액 월 2만6900원과 비교했을 때 약 5% 가량 요금이 절약된다.

/유선준기자

진격의 롯데…신동빈, KT렌탈도 품었다

유통·관광·금융 사업부문과 시너지 기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사진)의 거침없는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롯데그룹은 지난 11일 KT렌탈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총 인수 금액은 1조200억원이다.

이번에 안수한 지분은 KT가 보유한 58%와 교보생명 등 재무적 투자자 6개 회사가 보유한 42%를 합친 kt렌탈 전체 지분이다. KT렌탈은 국내 렌터카 시장 1위 업체로 이번 인수로 롯데가 국내렌터카 산업의 리더로 도약하게 됐다.

KT렌탈은 국내 렌터카 시장에서 점유율 26%로 2위 AJ렌터카(13.4%)를 따돌리고 압도적인 1위를 지키고 있다. 2013년에는 전년대비 23.6% 늘어난 8852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지난해 매출도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KT렌탈을 인수하는 롯데 측 회사는 호텔롯데이다. 호텔롯데는 공정위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롯데 측은 KT렌탈의 오토렌탈 카쉐어링 사업이 롯데의 다양한 사업부문과 높은 시너지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소비시장이 점차 소유 중심의 소비 형태에서 빌리거나 렌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는 전국 1만2000여개의 롯데 유통망을 활용해 KT렌탈의 영업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호텔롯데, 롯데손해보험, 롯데캐피탈 등 관광 금융사와의 다양한 연계 마케팅을 펼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렌터카 업종을 그룹의 새 성장 동력의 하나로 키워나간다는 전략이다.

롯데의 해외사업 주요 거점 중 하나인 KT렌탈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만큼 베트남에서의 사업 확장과 기타 지역으로의 신규진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직원 고용보장을 통해 임직원들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KT와도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롯데 관계자는 "KT렌탈이 국내 최대의 영업망, 자동 유통 인프라 뿐 아니라 국내 1위 카셰어링 업체 그린카까지 갖추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기존 유통, 금융, 관광서비스 등 그룹 사업들과 연계하면 큰 시너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오토렌탈 카셰어링 사업은 최근의 소비트렌드 변화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사업 중 하나"라며 "KT렌탈의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그룹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그룹은 올해 투자액은 7조5000억원으로 공격적인 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투자 규모는 지난해 5조7000억원보다 32%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지난 2010년 7조원보다도 5000억원 정도 많다. 올해 채용 인원도 지난해보다 250명 늘어난 1만5800명으로 정했다.

/김보라기자 bora9135@metroseoul.co.kr

버번위스키 짐빔 켄터키 파이어 에드윈 딘 … 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버번위스키 짐빔 켄터키 파이어(JIM BEAM Kentucky Fire)를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백화점의 변신…리빙관 강화

매장 넓히고 구성 업그레이드

백화점업계가 봄을 맞아 가구·주방용품·가전 등을 판매하는 리빙관을 강화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24일 잠실점 9~10층에 국내 백화점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리빙관을 열었다. 롯데 프리미엄 리빙관은 잠실점의 기존 리빙관보다 면적이 1650㎡ 늘어난 6300㎡ 규모로 가전·가구·홈패션·주방 등 리빙 전 분야에 걸쳐 총 154개의 브랜드를 선보인다.

테이블5 수원점. /AK플라자 제공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동하면서 쇼핑할 수 있도록 매장 경계를 최소화한 5개의 '테마 존'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AK플라자 분당점은 지난해 3월 5층 생활·가전 전문관에 문을 연 북유럽풍의 리빙편집매장 '테이블5(Table5)'가 인기를 끌며 최근 종합쇼핑몰인 AK& 수원점 6층에도 2호점을 열었다. 테이블5는 오픈 1년만에 누적방문객 수 13만명을 돌파했으며 같은 공간의 매출도 전년 보다 70%나 느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AK플라자 관계자는 "나만의 개성 있는 생활소품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지속적인 단독 브랜드 유치와 매장 구성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새로운 리빙쇼핑 문화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봄을 맞아 홈 인테리어 신상품을 대거 선보인다. 홈 리빙 편집매장 'HbyH'에서 유명 패션 디자이너 카티아조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가한 '리빙웨어 By 카티아조'를 진행한다.

'공간에 패션을 입히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카티아조가 직접 디자인한 의자 앞치마, 쿠션커버 등을 판매한다. 또 행사 기간 중 무역센터점 10층과 압구정본점 5층의 HbyH 매장을 연출해 카티아조 특유의 '프렌치 로맨틱 콘셉트'의 리빙 공간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내 리빙시장은 2010년 15조원에서 2013년 20조원 규모로 최근 3년 사이 30% 이상 성장했다. 특히 지난해 이케아, 자라홈 등 해외 브랜드의 국내 진출을 계기로 향후 국내 리빙시장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보라기자

롯데마트, 한우 40% 할인

수입고기 수요 증가에 한우 소비 촉진행사

한우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수입 쇠고기 수요가 늘자 유통업계가 한우 소비 촉진에 나섰다.

롯데마트는 오는 18일까지 전점에서 한우 100t 물량을 시세보다 최대 40% 저렴하게 내놓는다.

이권재 롯데마트 축산팀장은 "한우 가격 고공행진으로 소비심리가 많이 위축됐다"며 "지속적으로 한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행사를 펼쳐 농가 시름을 덜고 고객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한우유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우 월평균 경매 낙찰가격은 올해 들어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월에는 1.2%, 3월 5.9% 올랐다. 3월 1~10일 기준 한우 1kg 가격은 작년 1만3852원, 올해 1만4668원이다.

한우 가격이 오르는 것은 2012년부터 한우 수급 조절책으로 진행한 암소 감축 사업으로 송아지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2년 이상 키워 출하하는 한우 특성상 지금까지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송아지 생산 감소로 이달 한우우 사육 마릿수는 지난해 3월보다 3.7% 줄어든 271만마리다.

한우 가격 상승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소고기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관세청이 집계한 작년 국내 소고기 수입 금액은 전년보다 19.8% 늘었다.

롯데마트에서 지난해 한우 매출은 전년보다 4.3% 줄었지만 수입 소고기 매출은 6.1% 증가했다.

네이처리퍼블릭 인스타그램 채널 오픈

네이처리퍼블릭은 인스타그램 채널을 오픈하고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광고나 제품 사진 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나 에코 라이프 등 감성적인 이미지를 통해 고객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연주의 브랜드 콘셉트를 더욱 친근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송용헌 조합장 재선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제19대 조합장에 송용헌(71·사진) 현 조합장이 재선됐다고 12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21일부터 4년간이다.

송용헌 서울우유협동조합장은 지난 11일 총 4명의 후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서울우유협동조합장 선거에서 전체 1739표 중 744표를 획득, 득표율 42.8%로 당선됐다.

CU, 에너지 절감 '스마트 시스템' 도입

편의점 CU(씨유)는 에너지 절감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시스템'을 매장에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새롭게 오픈한 'CU 서울대 관정도서관점'은 점포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절감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매장은 REMS(매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 매장의 실시간 에너지 사용 현황 및 누적 데이터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3월 14일 토 밤 11시 첫방송
FashionN
깐깐한 그녀들의 리얼검증 프로젝트
Real
follow me 5
Queen

상쾌하고 매력적인 향기 선물하세요

엘리자베스아덴, 화이트데이 맞이 언톨드 향수 새 에디션 출시

엘리자베스아덴이 2015년 화이트데이를 맞아 언톨드 향수 컬렉션의 새로운 에디션인 '언톨드 오 프레시'를 내놨다.

오 프레시는 싱그러운 시트러스와 즙이 풍부한 과일 향, 선명한 색의 꽃과 우아한 우드의 노트를 조합해 언톨드 포트폴리오에 상쾌함을 더했다. 오 프레시는 긍정적이고 행복한 느낌을 준다.

'언톨드 우먼'은 다양한 매력을 지닌 현대 여성을 표현한다. 언톨드 라인은 그녀들의 다양한 성격을 다양한 노트로 표현했다. 신제품 언톨드 오 프레시는 쾌기자고 때로는 매혹적이며 현재를 즐길 줄 아는 여성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조향됐다. 유머 넘치고 발랄한 그녀들의 여정을 표현하기 위해 오 프레시는 '발랄하고', '주축적인', '여성스러운'·'낙천적인', '매혹적인' 각각의 노트를 담았다.

이와 함께 엘리자베스아덴은 화이트데이 선물로 '그린티 센트 스프레이'를 추천했다. 그린티향수는 미국에서 지난 1999년 7월 첫 출시된 이후 미국 뉴욕에 있는 MACY백화점에서 향수 판매량 1위를 차지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국내외에 누자열풍을 몰고 온 주역이다.

그린티는 상큼한 느낌과 청량감이 돋보이며 아로마틱 효과의 자일과 허브, 시트러스 향의 조합으로 기분을 맑고 상쾌하게 해주는 향이 특징이다. 스트레스와 공해로 얼룩진 도시인의 생활에 생기와 활력을 주는 새로운 개념의 프래그런스 스프레이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까지도 엘리자베스아덴의 꾸준히 판매되는 아이템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린티라인 제품군엔 다양한 바디제품도 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스포츠·아웃도어, '러닝 대회' 개막

2015 뉴레이스 서울·리듬워킹 대회 등

스포츠·아웃도어 업계가 이달 러닝화 신제품을 쏟아내며 러닝 대회를 열고 신제품 홍보에 나섰다. 일부 러닝 대회는 참가자들이 몰리며 매진을 기록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뉴발란스가 다음 달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는 2015 뉴레이스 서울은 총 2만 명을 대상으로 참가접수를 진행한지 45초만에 조기 마감됐다. 뉴발란스 측은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이용해 접수를 진행해 서버 다운 없이 45초만에 빠르게 마감하는 진기록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뉴발란스는 일부 매장과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뉴레이스 스타일'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 중 선착순 1000명에게 참가권을 무료로 증정하고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아웃도어 브랜드 라푸마의 리듬워킹 대회도 신청 접수를 시작한지 열흘 만에 조기 완판을 기록했다. 22일까지 LF몰과 라푸마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참가접수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신청마감을 2주 넘게 앞두고 선착순 3000명이 마감됐다. 4월 12일 남산에서 진행되는 라푸마 리듬워킹은 워킹과 뮤직 퍼포먼스가 결합된 라푸마의 대표 문화 행사이다. 올해는 피날레로 가수 김범수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한편 푸마도 5월에 이그나이트 서울 레이스를 연다. 대회 이름은 12일 출시하는 신제품 '이그나이트'에서 따왔다. 3월은 대학교에서, 4월은 서울 도심 공원에서 드라이엘 더미 이벤트를 진행, 신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봄·가을에 스포츠 업계에서 러닝 대회를 연다"며 "대회장에서 신발이나 의류를 참가자에게 증정하는 등 러닝 대회와 연계해 제품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CJ그룹, 오늘부터 상반기 대졸 신입공채

24일까지 서류 접수, 11개 주요 계열사 대졸신입·인턴·장교 채용

CJ그룹(회장 이재현)이 올 상반기 채용을 시작했다. 올해도 지난해 채용 수준인 약 1200명을 상·하반기에 나눠 선발할 계획이다.

CJ그룹은 CJ제일제당, CJ E&M, CJ대한통운, CJ오쇼핑 등 11개 주요 계열사에서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서류 접수는 13일부터 24일까지 CJ그룹 채용 홈페이지(recruit.cj.net)를 통해 진행된다. 지원 자격은 2015년 8월 졸업예정자를 포함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며 모집직무는 경영지원, 마케팅, 영업, R&D, 콘텐츠사업 등 계열사별로 다양하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4월 중 발표되며 이후 테스트 전형, 실무진 및 임원 면접을 거쳐 7월 중 그룹 상반기 대졸 공채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된다.

상반기 인턴사원과 전역(예정) 장교 모집도 시작한다.

인턴사원 모집은 CJ제일제당, CJ헬스케어, CJ프레시웨이, CJ CGV, CJ대한통운, CJ오쇼핑 등 6개 계열사에서 진행하며 2016년 2월 졸업예정자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서류 전형 이후 테스트 전형과 면접을 거쳐 7월부터 5주간 인턴사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인턴십 종료 후 최종 평가를 통해 2015년 하반기 신입사원으로 최종 입사한다.

전역(예정) 장교 모집은 CJ푸드빌, CJ대한통운 등 4개 계열사에서 진행하며 2015년 전역 예정자와 기 전역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두 전형 모두 서류접수 기간은 13일부터 24일까지로 신입사원 공채와 동일하다.

한편 CJ그룹은 '당신이 문화를 만듭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하고 이색적인 멘토링 행사를 펼치고 있다. 이달 초 CJ임직원들과 함께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1일 인턴 체험을 하는 '내일을 말하다 미생'을 진행한 데 이어 21일에는 국내 대기업 최초로 실시간 온라인 화상채팅을 통해 채용설명회를 진행하는 온라인 멘토링을 개최한다. 멘토링 체널로서의 참가신청은 18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현대홈쇼핑, 미래 방송 인력 양성 힘쓴다

현대홈쇼핑(대표 강찬석)은 12일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사옥에서 55명의 대학생에게 총 1억106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지원 대상 학교는 고려대, 광운대, 서강대, 수원대, 한양대, 전남대 등 11개 대학교로, 각 학교별로 5명을 선발해 학교당 1000만원씩 지원한다.

현대홈쇼핑은 지난 2008년부터 8년째 방송 분야의 미래 인력 육성을 위해 방송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19개 학교를 대상으로 총 10억원을 지원했고 수혜 학생은 500명에 달한다.

신라스테이, 디너 뷔페 1+1 패키지

3월 한정 프티 파크뷰 디너 뷔페 특별가에 제공

신라스테이 역삼은 3월 한달 동안 디너뷔페를 특별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디너 뷔페 1+1 패키지를 선보였다.

이번 패키지는 신라 호텔의 맛을 담아 프티 파크뷰로 불리는 뷔페 레스토랑 카페(Cafe)에서 모닝뷔페와 디너뷔페를 즐기며 1박 2일 호텔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패키지 구성은 호텔 신라 수준의 고급 침구가 마련된 스탠다드 객실 1박과 뷔페 레스토랑 카페 조식 2인, 디너뷔페 2인과 생맥주 2잔이 포함돼 있다.

모닝 뷔페에는 신선한 샐러드와 갓 구워낸 크로아상 등이 제공되며 라이브스테이션에서 오믈렛을 비롯한 다채로운 계란요리, 쌀국수 등을 즐길 수 있다.

디너 뷔페에는 대게·LA 갈비, 쌀국수 등 신라호텔 뷔페 레스토랑 파크뷰의 인기메뉴를 엄선해 동일한 레시피와 동일한 식 재료를 사용해 신라호텔의 맛을 그대로 구현했다. 신선한 초밥을 포함해 연어, 게이건, 제철과일·한식·중식 메뉴 등으로 다채롭다.

패키지 가격은 주말 24만 9000원, 주중 29만 9000원이다.(세금 별도)

/김보라기자 bora@metroseoul.co.kr

롯데칠성음료, '세븐업' 리뉴얼

가격 변경 없이 용량 늘려…패키지 디자인 교체

롯데칠성음료가 글로벌 탄산음료 브랜드 '세븐업(7UP)'의 패키지 디자인을 새롭게 변경했다.

이번 리뉴얼은 제품 성분과 가격 등은 유지하되 1929년 출시된 세계 최초 레몬라임향 탄산음료인 세븐업의 전통성을 알리고 차별화된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해 전 세계에 판매되는 세븐업과 동시에 패키지 디자인을 변경했다.

시원한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초록 바탕의 라벨에 1900년대 분위기를 살리고자 제품명(7UP)은 독특한 빈티지 느낌의 유려한 글씨체를 적용한 것이 눈에 띈다. 전통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출시년도인 'since 1929'도 추가했다.

또 가격 변동 없이 기존 500㎖ 페트의 용량을 늘려 600㎖ 페트로 선보였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세븐업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유튜브를 활용한 광고, 대학교 공연장 샘플링 등 온라인·오프라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 23일까지 채용 접수

학력·성적·어학점수 작성란 삭제…총 117명 뽑아

최근 공공기관과 주요 대기업들이 스펙 초월 채용 계획을 선언한 가운데 안전보건공단이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을 활용한 채용에 나선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태도 등의 직무 관련 능력을 표준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입사지원서에 ▲학력 ▲성적 ▲어학점수 ▲연수경험 ▲봉사활동 등의 스펙란을 삭제하고 모든 전형단계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도입했다.

또 지원서에는 관심 업무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입력토록 했다. 특히 공단은 지원 분야의 관련된 경험, 직무수행 계획 등을 통해 능력 중심의 인재를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번 채용을 통해 정규직과 채용형 인턴 등 총 11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정규직 중에는 경력직 17명과 시간선택제 근로자·장애인 13명도 포함된다.

채용형 인턴 역시 87명을 선발해 2개월간의 근무를 마친 후 7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단은 이번 채용에서 사회형평적 인력을 고려해 전체 인원의 20%를 고졸자 중에서 채용한다. 게다가 공단은 공단 본부의 울산 이전에 따라 울산광역시 소재 학교 졸업자와 산재사망사고 유가족 등은 우대한다.

지원서 접수는 23일까지이며 공단은 서류심사와 필기시험, 면접심사 등 3단계에 걸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문의 (052)703-561~7 www.kosha.or.kr

/황재용기자 hsoul38@

마트에서 장보듯 여행을?

하나투어 자유여행 온라인 박람회 16일부터

해외 자유여행 시장이 확대되면서 여행에 필요한 항공권과 호텔, 교통패스 등의 단품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나투어도 이에 발맞춰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소개하는 자유여행 온라인 박람회 '하나free마트'를 오는 16일부터 선보인다.

하나free마트는 자유여행객들이 나만의 특별한 여행을 만들 수 있도록 단품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하나투어는 항공권과 호텔 숙박권은 물론 에어텔과 현지 투어를 위한 다양한 교통패스와 해외 입장권 등도 준비했다.

특히 홍콩 왕복 항공권을 17만 9000원에 구입할 수 있으며 방콕의 5성급 호텔에서의 3박 숙박도 9만9000원이면 해결 가능하다. 아울러 방콕 칼립소쇼 티켓이 선착순으로 무료 제공되며 루브르박물관 입장권을 구매하면 오르세 미술관 입장권이 공짜로 주어진다.

이와 함께 상품 2개 이상을 동시에 구매하면 'T로밍 데이터쿠폰 1일권'을 선물로 받을 수 있고 하나투어 페이스북에서는 하나free마트와 관련된 댓글 이벤트도 이어진다.

한편 하나투어는 특별한 허니문을 찾는 커플들을 위해 5월 16일 태국 푸껫에서 김기리와 함께하는 '허니문 디너파티'를 개최한다. 파티에는 5월 16일부터 18일 사이에 출발하는 하나투어 푸껫 허니문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황재용기자

고려은단 오메가3 출시

고려은단(대표 조영조)이 식물성 원료로 제조한 '고려은단 오메가3'를 출시했다.

제품은 북미와 유럽 등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제품에 이용되는 DSM사의 식물성 미세조류에서 추출한 원료로 제조됐다.

또 PTP 포장으로 보존성을 높였으며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황재용기자

두근두근… 스포츠게임이 몰려온다

엔트리브 '프로야구 육성공' 출시 임박
컴투스·넷마블게임즈 시범 경기 이벤트
넥슨 '피파 온라인3' 아디다스와 제휴

올봄 신나는 스포츠 게임이 몰려온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스포츠 게임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2015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야구 게임들이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엔트리브소프트는 첫 모바일 야구 게임 '프로야구 6:30(육삼공)' 출시를 앞두고 있다. 최근 비공개 시범 테스트(CBT)를 마친 이 게임은 28일 프로야구 개막 무렵에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게임명에 등장하는 숫자 '6:30'은 한국 프로야구가 시작하는 평일 오후 6시 30분을 의미한다.

프로야구 육삼공에는 엔트리브소프트와 미국 스포츠 모굴이 공동으로 개발한 신규 엔진 '그랜드 슬램'이 적용됐다. 모바일 야구 시뮬레이션 게임 최초로 3D 중계 화면이 제공돼 전략 결과를 실제 야구를 보는 것처럼 관전할 수도 있다. 엔트리브소프트는 10개 구단 수집과 서재응 프로야구선수협회장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 **스포츠 게임 봄시즌 돌입**

기존 야구 게임들은 시범 경기 모드에 돌입했다.

컴투스의 인기 야구 매니지먼트 게임 '컴투스 프로야구 for 매니저'는 프로야구 시범 경기 기념 이벤트를 연다. 풍성한 경험치와 게임 재화를 증정하는 이번 행사는 시범 경기가 열리는 7일부터 22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이 게임은 선수 카드 배틀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기록을 기반으로 한 정교한 구단 운영의 재미에 중점에 둔다.

넷마블게임즈의 모바일 야구 게임 '마구마구2 for Kakao'도 프로야구 시범 경기 개막 이벤트를 진행한다. 마구마구2는 3D 그래픽과 여러 각도의 카메라 앵글을 통한 생생함이 특징이다. 넷마블은 16일까지 매일 시범 경기에서 나온 점수만큼의 게임 재화 '마구볼'을 전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응원 이벤트를 연다. 올해 처음으로 KBO 리그에 합류한 10번째 프로구단 KT위즈가 승리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 레어 등급의 선수 카드를 모든 이용자들에게 선물한다.

한편 야구뿐 아니라 축구 게임도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K리그 클래식은 7일 시작한다. 이에 맞춰 넥슨은 자사가 서비스하는 온라인 축구게임 '피파 온라인3'에서 최근 아디다스와 제휴를 맺고 공동 프로모션을 시작했다. 아디다스 축구화 구매 시 피파 온라인3 아이템을 증정하는 이 행사는 14일과 18일 두 차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정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삼시세끼 어촌편' 효과?

'낚시의 신' 3000만 다운로드 돌파

예능 대세로 자리매김한 '삼시세끼 어촌편' 흥행에 힘입어 모바일 게임 '낚시의 신'도 신바람을 타고 있다.

컴투스는 모바일게임 '낚시의 신'이 글로벌 다운로드 3000만 건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 게임은 중국, 홍콩,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미국·유럽 지역에서도 인기를 끌면서 흥행을 예고한 바 있다. 출시 40여 일 만에 다운로드 1000만 건을 넘기는 기록도 세웠다.

영국의 모바일 게임 전문매체 '포켓게이머'가 선정한 2015년 최고의 스포츠게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올해 초부터는 국내 시장 공략도 본격화해 지난달 국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각각 인기 무료 스포츠게임 부문 1, 2위에 올랐다.

컴투스 관계자는 "낚시의 신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쉬운 조작으로 글로벌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컴투스는 '낚시의 신' 3000만 다운로드 돌파를 기념해 4월 9일까지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연다.

/서유리기자 lorilee@

런너들의 사랑을 응원할게
화이트데이 인기운영자를 뽑아라!

사탕 받고… 아이템 받고…

화이트데이 이벤트 풍성

커플 이벤트·사탕 꾸러미 아이템… 14일 화이트 데이를 맞아 게임업계가 달콤함으로 물들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캐주얼게임 기업 킹은 지난 5일 출시한 신작 게임 '캔디 크러쉬 소다'에서 스윗 화이트데이 이벤트를 17일까지 벌인다. 화이트 데이가 남성이 좋아하는 여성에게 사탕을 주며 고백하는 날이란 점에서 캔디 크러시 소다는 게임 이름에 걸맞은 달콤한 선물을 준비했다.

참가 방법은 이용자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캔디 크러시 소다를 소재로 재미있는 사진을 찍어 캔디 크러시 소다 공식 페이스북에 인증샷을 올리면 된다. 킹은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는 캔디 크러쉬 소다 소다곰 커플컵(2종 1세트), 100명에게는 캔디 크러쉬 소다 노트 볼펜 세트, 400명에게는 캔디 크러쉬 소다 휴대폰 케이스(2종) 등 커플을 위한 다양한 캔디 크러쉬 소다 브랜드의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24일 발표된다.

넥스업게임즈의 MMORPG '아키에이지'는 화이트데이 기념 인기 여성 운영자를 뽑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일일 퀘스트를 수락해 '사랑의 사탕 꾸러미'를 배달하면 된다. 퀘스트를 완료하면 1일에 점수와 공격 속도 버프을 증가 효과가 있는 '사탕'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 퀘스트에서 받은 '마음이 담긴 사탕' 아이템을 마음에 드는 4명의 아키에이지 게임 운영자 고대의 숲 '하얀 숲' 마하데비 노래의 탑 중 한 명의 보관함에 넣으면 인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김정하 아키에이지 사업팀장은 "발렌타인데이 이벤트 반응이 좋아 여성 운영자에게 사탕을 전달하고 인기 투표도 할 수 있는 화이트데이 이벤트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에프엘모바일코리아 MMORPG '오스트크로니클'은 13일부터 15일까지 게임 접속만 해도 '언컨소스톤 상자B'을 증정한다.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는 '테일즈 런너'에서 게임 내 미팅 시스템을 통해 커플이 된 후 커플 레벨을 올리는 이용자 전원에게 신규 아이템 커플날개를 지급한다.

/정윤희기자

metro entertainment E

사랑 얘기 독특하게 풀어냈죠

6인조 아이돌 그룹 보이프렌드가 지난 9일 네 번째 미니앨범 '보이프렌드 인 원더랜드(Boyfriend in Wonderland)'를 발표했다. 앞서 '피터팬' '빨간두건' 등 메르헨 동화를 콘셉트로 삼아 독특한 무대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이들은 이번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인물들로 변신했다.

◆ 이번엔 제대로 즐겨보자

나아들곡 '바운스' 에서 멤버들은 각자 하얀 토끼, 트럼프 카드 병정, 모자 장수, 고양이가 됐다. '바운스'는 길들 팔팔하는 여자에게 모든 마음을 쏟아 부으며 고백하는 남자의 이야기로, 멤버들은 앨리스(여자)의 마음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사랑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 자체가 독특하다는 말에 리더 동현은 "우리 팀의 독특한 색깔"이라고 정의했다.

"저희 팀명이 보이프렌드, 남자친구잖아요. 여러 유형의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저희도 여러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고 항상 생각해요. 전작 동화라는 콘셉트가 저희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에 적합한 방법 같았어요." (동현)

이번 앨범은 그 어느 때보다 멤버들의 참여도가 높다. 수록곡 '로스트 메모리(Lost Memory)'는 동현과 정민이 함께 작업한 두 번째 자작곡이다. 동현은 평소 좋아했던 영화 '이터널 선샤인'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다.

"무척 마음에 드는 곡이에요. 몸

(왼쪽부터)동현, 민우, 영민, 광민, 정민, 현성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콘셉트 다양한 모습
"무대 즐기면서 재밌게… 지상파 1위 목표"

론 타이틀곡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예전엔 무조건 열심히 해서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이번엔 무대 위에서 즐기면서 재밌게 하고 싶어요. 다음번엔 타이틀곡도 자작곡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정민)

"전 제 자신이 기대가 돼요. 애착을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자작곡부터 캐릭터, 뮤직비디오 콘셉트까지 제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됐으니까요." (동현)

후속곡은 '로스트 메모리'로 활동하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의 자작곡이라서가 아니라 이 노래가 정말 제 취향이거든요. 또 팬들도 보이프렌드의 새로운 모습을 보면 좋아할 것 같아요." (정민)

어느덧 데뷔 5년차인 보이프렌드는 늘 여자에게 당하는 내용만 노래했다며 다음엔 복수하는 내용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피터팬 콘셉트에선 별이 잘렸고, '빨간 두건' 에선 늑대한테 다 당했어요. 이번엔 앨리스의 유혹에 넘어가 농락을 당하죠(웃음). 복수에 나설 차례가 됐어요." (현성)

◆ 데뷔 5년차 아이돌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한 덕분에 일본에서 이들의 인기는 상당하다. 하지만 한국 땅을 자주 비워 둔 탓에 국내 팬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보이프렌드는 이번 활동 기간 동안 음악 방송은 물론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비출 계획이다. 쌍둥이 형제 영민 광민은 MBC '진짜사나이'에 출연하기 시작했다. 무대 위에서 멋져 보이고 싶을 테지만 '진짜사나이'를 위해 삭발까지 감행했다.

"녹화를 마치고 택시를 탔더니 기사님이 군인이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광민)

"'진짜사나이'에서 보이프렌드를 알리려고 저희 노래도 불렀어요." (영민)

팀을 알리기 위해 애쓰는 영민·광민 형제를 위해 나머지 멤버들이 '진짜사나이'에 위문 공연을 가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제안에 동현은 "걸그룹이 아니라서 오히려 싫어하실 걸"이라고 잘라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활동이를 시작으로 멤버 모두가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을 덧붙였다.

지난해 이들은 국내 케이블 음악 프로그램에서 데뷔 후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또 해외 활동을 기다리다 지친 팬들을 위해 콘서트도 개최했다. 이번 활동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일까.

"지난해 목표는 음악 방송에서 1위하는 거랑 콘서트 하는 거였는데 둘 다 이뤘어요. 이번 앨범도 저희끼리 '2월 쯤 나오고 싶어요'라고 말한 게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말하는 대로 이뤄지니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번엔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 1위를 새 목표로 잡았어요." (민우)

/김지민기자 sm...@metroseoul.co.kr

사진/스타쉽 제공 디자인/최송이

star bag

전현무와 'K팝스타' 진행

걸그룹 걸스데이 **유라**가 15일 오후 4시50분부터 인천남동체육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SBS 'K팝스타' MC로 합류한다. 유라는 메인 MC 전현무를 도와 객석과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방송에선 참가자 몇 팀의 무대가 펼쳐진다.

음반 발매 전 무료 음감회

피타입이 정규 4집 '스트리트 포아트리' 발표를 앞두고 14일 오후 6시 서울 마포구 서교동 웨스트홀릭2에서 무료 음감회를 개최한다. 피타입은 이날 신곡과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할 계획이다. 앨범은 오는 20일 발매된다.

유병재 작가와 연기 호흡

배우 **백누리**가 유병재 작가와 호흡을 맞춘다. tvN 금요코미디 '초인시대'는 'SNL 코리아' 유병재 작가가 극본과 주연을 동시에 맡은 코미디물이다. 백누리는 유병재의 대학동기 누리 역을 맡았다. 내달 10일 오후 11시30분 첫 방송된다.

'킬미힐미' 마지막 촬영 인증

배우 **황정음**이 MBC 수목극 '킬미힐미' 마지막 촬영 인증샷을 공개했다. 12일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에 "마지막 촬영 끝! 감독님께서 선물해주신 꽃다발과 함께~ 오늘 마지막 회도 본방사수 해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싱글벙글한 분위기는 지이내 시선을 사로잡는다.

중성미 빛나는 김고은

차이나타운' 파격 쇼트커트 변신

배우 김고은(사진)이 영화 '차이나타운'(감독 한준희)으로 1년 만에 스크린에 컴백한다.

'은교'로 해성 같이 등장한 김고은은 지난해 '몬스터' 등을 통해 새로운 변신을 시도해 주목을 받았다. '차이나타운'에서는 쇼트커트 헤어에 중성적인 매력을 지닌 캐릭터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차이나타운'은 오직 쓸모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차이나타운에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아온 두 여자의 생존 법칙을 그린 영화다. 김고은은 지하철 보관함에 버려지고 차이나타운에서 길러진 아이 일영 역을 맡았다.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살아남기 위해 엄마(김혜수)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악착같이 해내는 인물이다.

한준희 감독은 "처음부터 김고은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썼다. 김고은 외에는 어떤 배우도 생각나지 않았다"고 캐스팅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혔다. 김고은은 시나리오를 읽고 단번에 매료돼 영화를 선택했지만 감정 절제와 순간적인 폭발력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캐릭터인 만큼 매 순간 고민의 나날을 보냈다.

특히 거친 차이나타운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시크한 일영을 표현하기 위해 트레이드마크였던 단발머리를 쇼트커트로 자르고 중성적인 느낌의 의상을 선택해 매력적인 캐릭터를 완성해냈다. 과격한 액션을 소화하기 위해 액션 스쿨을 다니며 연습을 하기도 했다.

'차이나타운'은 오는 4월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용기와 따뜻한 마음 담은 고전

원작 재현에 초점…'겨울왕국' 단편 애니메이션도 함께

디즈니의 신작 실사영화 '신데렐라'에는 할리우드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나타내는 두 여배우가 등장한다.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서 요정 갈라드리엘을 연기했던 케이트 블란쳇과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어린 포터를 괴롭힌 벨라트릭스 역을 맡았던 헬레나 본햄 카터가 그 주인공이다.

이전 출연작들을 통해 두 배우들이 쌓아온 이미지를 잘 아는 관객이라면 '신데렐라'에서 이들이 연기하는 역할이 사뭇 색다르게 다가올 것이다. 신비로운 마스크를 지닌 케이트 블란쳇이 신데렐라를 힘들게 만드는 나쁜 계모 역을, 외모는 물론 연기까지 개성이 뚜렷한 헬레나 본햄 카터가 신데렐라에게 마법 같은 순간을 선사하는 요정 대모 역을 맡았다는 사실은 익숙한 이미지를 비트는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사 영화로 새롭게 태어난 '신데렐라'에는 이 두 여배우의 캐스팅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신데렐라'는 동화 특유의 고전적인 느낌을 스크린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오즈 그레이트 앤드 파워풀' '말레피센트'가 원작의 재해석과 현대적인 각색을 전면에 내세웠던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영화의 주제도 매우 고전적이다. 상상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소녀 신데렐라를 통해 영화는 힘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따뜻한 마음'의 가치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이에게는 마법 같은 순간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말한다. 물론 엄마는 남루한 모습이지만 왕자 앞에 당당히 나서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신데렐라를 통해 환상을 즐기되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도 놓치지 않는다. '신데렐라'와 같은 착한 마음을 지닌 이들에게 '신데렐라'는 마법 같은 순간처럼 다가갈 것이다.

다만 이상하게도 영화를 보고 나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신데렐라보다 케이트 블란쳇이 연기한 계모의 모습이 여운에 남는다. 죽은 남편을 대신해 두 딸을 키우기 위해 돈이 나올 곳을 찾아다니며 살아온 계모에서 나이가 들수록 현실적이 되가는 어른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다. 계모의 시점으로 원작을 비틀었다면 조금 더 흥미롭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생긴다.

'겨울왕국'의 팬이라면 '신데렐라'와 함께 상영되는 단편 '겨울왕국 열기'가 더 궁금할 것이다. 7분 분량의 '겨울왕국 열기'는 신곡 '메이킹 투데이 어 퍼펙트 데이'와 함께 안나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엘사와 올라프, 크리스토프의 이야기를 담았다. '겨울왕국'의 여운을 떠올리기에 충분한 귀여운 소품이다. 전체 관람가. 3월 19일 개봉.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마지막 요리 미션

◆ tvN '삼시세끼 어촌편' 오후 9시45분

차승원이 마지막 요리 미션인 회전초밥과 해산물 피자를 만든다. 머리에 두건을 쓰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무언가 구워내는 모습이 공개돼 기대감을 높인다. 그동안 배추김치부터 동지미, 홍합 짬뽕, 우럭 탕수육, 식빵까지 요리에 '극찬' 일품을 빚어냈다. 만재도의 마지막 '삼시세끼'를 화려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오후 5시30분

아이의 편식을 해결한다. 민재(4세)는 오직 라면만 먹는다. 밥을 먹이려고 하면 울어버리는 탓에 엄마는 매번 라면을 끓여줄 수밖에 없다. 과연 오은영 전문가의 해결책을 통해 라면을 끊을 수 있을까?

◆ tvN 새 금토극 '슈퍼대디 열' 오후 8시30분

첫사랑에게 차인 후 혼자 사는 게 목표가 된 한열(이동건). 10년 만에 나타나 결혼하자고 하는 첫사랑이자 싱글맘 차미래(이유리). 아빠가 갖고 싶은 사랑이(이레)가 가족이 되는 이야기다.

◆ KBS2 드라마스페셜 2015 '기만히 있으라' 오후 8시30분

박찬수(이문식)는 홀로 딸을 키우는 강력계 형사이다. 어느 날 딸이 실종되고 자신이 가장 믿고 아꼈던 소년범 엄준식(이주승)이 용의자로 체포되는 비극적인 상황과 마주한다. 과연 박찬수는 가만히 실 수 있을까?

◆ SBS '정글의법칙 위드 프렌즈' 오후 10시

김병만이 맨손으로 갑오징어를 잡아 족장의 위엄을 보여준다. 갑오징어의 딱딱한 뼈 때문에 작살이 부러졌기 때문이다. 소고기처럼 부위별 맛이 다른 갑오징어를 볼 수 있다.

◆ KBS1 '명견만리 차이나 3.0' 오후 10시

2부 '중국발 쓰나미 생존의 조건'이 방송된다. 세계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중국발 쓰나미로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 현장을 김난도 교수가 취재한다.

◆ MBC '나는 가수다 시즌3' 오후 10시

세 번째 탈락자가 결정될 3라운드 2차 경연이 그려진다. 특히 지난주 1위를 차지한 가수 양파는 선명한 파란색 정장을 입고 무대에 오른다. 최종 우승까지 거머쥘 수 있을 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 KBS2 '용감한 가족' 오후 11시10분

씨엔블루 멤버 강민혁과 AOA 설현이 생애 첫 소몰이에 도전한다. 예정되로 라오스 등판이 장관을 이뤄 명장면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설현은 민혁에게 "소고기를 좋아한다. 소잡아?"라고 제안을 한다.

◆ MBC '나 혼자 산다' 오후 11시15분

밴드 씨엔블루 정용화가 깜짝 출연한다. 멤버 전현무, 강남이 정용화의 열성(팬인) 쇼코를 위해 만남을 주선한 것이다. 정용화는 쇼코만을 위한 세레나데를 부르며 역대급 팬 서비스를 한다.

KIA 새내기 문경찬 '씽씽투'

4이닝 무실점 합격점· LG 홈런 3방 화력쇼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시원한 홈런포를 날리며 '거포군단'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LG는 12일 포항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2015 타이어뱅크 KBO 시범경기에서 홈런 3방을 앞세워 10-7로 승리했다.

1회초부터 터졌다. 이병규는 2사 1루에서 삼성 외국인 투수 타일러 클로이드의 시속 142㎞짜리 직구를 공략해 우중간 담을 넘어가는 비거리 120m 투런 아치를 그렸다.

3-1로 앞선 2회초 오지환이 클로이드의 컷 패스트볼을 밀어쳐 우중월 3점 홈런을 날렸다. 3회에는 LG가 주목하는 자세대 거포 최승준이 투런 홈런을 날리며 홈런 행진에 합류했다.

지난해 LG의 팀 홈런은 90개다. 9개 구단 중 유일하게 100개 미만의 팀 홈런을 기록했다. 이 부문 1위 넥센 히어로즈(199홈런)와 격차는 무려 109개였다.

투수력을 앞세워 4위에 턱걸이해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LG는 올해는 화력까지 겸비해 강팀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다.

양상문 감독은 경기 후 "이병규 등 올해 팀을 이끌어야 하는 선수들이 장타를 쳤다"며 "장타력 상승은 우리가 원했던 부분"이라고 기분 좋게 말했다.

KIA 타이거스는 시범경기 첫 선발로 나선 새내기 문경찬의 호투로 넥센 히어로즈를 5-2로 제압했다.

대졸 신인인 문경찬은 4이닝 동안 볼넷 없이 2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했다. 최고 구속은 시속 139㎞에 그쳤으나 제구력과 새내기답지 않은 경기 운영 능력이 돋보였다.

전날 NC 다이노스를 제물로 첫 승리를 신고한 '막내' KT 위즈는 부산 원정에서 롯데 자이언츠의 추격을 6-5로 뿌리치고 2연승을 달렸다. KT에서 새출발하는 베테랑 장성호는 2-1로 앞선 6회 1사 1루에서 좌월 투런 홈런을 터트려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두산 베어스는 한화 이글스를 3-2로 꺾었다. SK 와이번스와 NC 다이노스는 3-3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2015 프로야구 시범경기 기아와 넥센 경기 1회말 기아 투수 문경찬이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골퍼 전상우 '박정아의 남자'

골프 인연 연인 발전

프로골퍼 전상우(32·사진 왼쪽)가 두살 연상의 배우 박정아(34·오른쪽)와 열애중이다.

전상우는 180㎝ 큰 키에 훈훈한 외모를 갖췄다. 2004년 한국프로골프(KPGA) 회원으로 가입해 2006년 KPGA 투어를 통해 프로에 데뷔했다. 2007년 금강산 아난티 오픈에서 공동 10위에 오르는 등 프로 골퍼로 기반을 다져가고 있지만 우승 경력은 없다.

박정아는 2001년 걸그룹 쥬얼리로 데뷔해 인기를 얻었으며 그룹은 물론 솔로로도 활약했다. 이후 연기자로 변신해 '1박 2일 서영이' '귀부인' '웃어라 동해야' 등에 출연했다.

골프에 애정이 남달랐던 박정아는 전상우와 골프를 매개로 친해졌고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3~4개월로 연애 기간이 짧지만 미래까지 생각할 정도로 진지하게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아 측 더블유엠(WM)컴퍼니는 12일 "박정아가 석달 전부터 전상우와 친구 이상의 사이로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연인 사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서로를 알아가는 중이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순호기자

우규민·류제국 부상 털고 온다

LG 양상문 '함박웃음'

양상문(54) LG 트윈스 감독의 얼굴에 요즘 미소가 가득하다.

삼성 라이온즈와 KBO 시범경기를 앞둔 12일 양 감독은 "13일 삼성전에 우규민(사진)이 선발 등판한다"고 말했다.

잠수함 투수 우규민은 지난해 11월 왼쪽 고관절 물혹 제거 수술을 했다. 수술과 재활로 평소보다 공을 늦게 잡았고, 스프링캠프 평가전에도 나서지 못했다. 올해 첫 실전등판이다. 오는 28일 개막전에 맞춰 1군 합류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오른 무릎 수술을 받은 류제국도 복귀 시점을 앞당길 전망이다. 애초 LG는 류제국의 1군 마운드 복귀 시점을 5월 말로 잡았다. 그러나 류제국이 재활에 속도를 내면서 LG는 류제국의 조기 합류를 기대하고 있다.

양 감독은 "우규민은 현재 진행 속도를 유지하기만 해도 시즌 초 선발 로테이션 합류에 문제가 없다"고 미소지었다. 이어 "류제국도 사이판 재활훈련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다"며 "사이판에서 하프피칭까지 소화했는데 일반적으로 이 정도 속도라면 한 달 후엔 1군 등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즌 초 선발 자원 부족에 고심했던 LG는 우규민과 류제국이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선발 로테이션에 숨통이 트였다.

/김민준기자

수비수 최고 몸값 루이스 '친정' 첼시에 비수

UEFA 챔피언스리그

극적 동점골 PSG 8강 견인 7골 폭발 뮌헨도 합류

10명이 싸운 파리생제르맹(PSG·프랑스)이 첼시를 연장 접전 끝에 물리치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에 진출했다.

PSG는 12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2014-2015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첼시와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파리에서 열린 1차전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한 양팀은 1, 2차전 합계 3-3 동점을 이뤘다. 그러나 원정팀 다득점 원칙에 따라 원정에서 2골을 넣은 PSG가 8강에 올랐다.

첼시는 전반 31분 PSG의 골잡이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퇴장을 당하면서 쉽게 승리를 낚는 듯했다. 한 명이 부족해진 PSG를 상대로 총공세에 들어가 후반 36분 게리 케이힐의 선제골이 터지며 승기를 잡았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지난 시즌까지 첼시에서 뛴 다비드 루이스가 후반 41분 헤딩 동점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다. 루이스는 골라인을 따라 달려가다가 점프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는 세리머니를 했다.

연장전에서 첼시는 에덴 아자르의 페널티킥으로 다시 앞서가다 종료 직전 사우바이 헤딩 동점골이 터지며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

경기 후 헤딩골로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간 루이스는 "첼시와의 경기에서는 골을 넣어도 세리머니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감정을 조절할 수 없었다"며 "첼시 팬들에게 감사하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브라질 출신인 루이스는 올 시즌을 앞두고 역대 프로축구 사상 수비수 최고 몸값에 PSG로 이적했다. PSG는 약 5000만 파운드(약 850억원)를 첼시에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바이에른 뮌헨(독일)은 안방서 샤흐타르 도네츠크(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토마스 뮐러의 멀티골을 앞세워 7-0으로 승리했다. 1차전을 0-0으로 마친 뮌헨은 합계 7-0으로 8강에 올랐다.

전반 3분 도네츠크 수비수의 거친 파울로 퇴장을 이끌어낸 뮌헨은 제롬 보아텡, 리베리, 뮐러, 괴체 등의 골을 묶어 대승을 장식했다.

/김민준기자

올 시즌 첼시에서 PSG로 이적한 다비드 루이스가 12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2014-2015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동점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AP 연합뉴스

겨울잠에서 깨어난 도롱뇽 12일 충남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 부근의 한 계곡에서 겨울잠을 깬 도롱뇽 한 마리가 알 속에 낳은 알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을 경계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대 '집안싸움' 본격화

'학사구조 개편안' 두고 학교·교수·학생 갈등 깊어져

중앙대학교가 학사구조 개편안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중앙대는 지난달 26일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2016학년도부터 학과제를 전면 폐지하고 단과대학별로 신입생을 모집해 2학년 2학기 때 전공을 결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중앙대 전·현직 교수협의회와 대학평의원회 의장 등으로 구성된 '교수대표비상대책위원회'는 인문대·자연대·사회대·예술대 교수비대위와 함께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학사구조 개편안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응답자 555명 중 513명(92.4%)이 대학본부의 계획안을 반대했다. 특히 교수비대위는 12일 투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학본부가 계획안을 강행할 경우 총장 불신임 투표와 함께 법적 대응 등으로 맞설 것을 천명했다.

하지만 이용구 중앙대 총장도 굽히지 않았다. 이 총장은 12일 학내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이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계획안의 근본 취지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강화해 경쟁력 있는 인재를 만드는 것"이라며 "임의단체를 구성해 학내를 분열시키고 정상적인 논의를 반대하는 행위는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 사이의 집안싸움도 커지고 있다.

이날 총학생회는 이 총장과 마찬가지로 교내 커뮤니티를 통해 교수비대위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교수비대위가 학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과 관련해 학생을 볼모로 논리적인 근거 없이 편파적인 주장을 펼친다는 내용이다. 총학생회는 "선진화 계획이 지극히 반교육적이라는 교수비대위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대학공동체의 구성원인 학생의 동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반면 일부 학생들은 1인 시위 등으로 학교에 반기를 들었다. 학사구조 개편안이 학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학생들의 교육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선진화 계획에서 학생이 빠진 일방적인 강행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대 한 재학생은 "이번 선진화 계획이 진행되면 취업률 등 경쟁에서 취약한 학과와 학문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서울 알바 평균시급 6042원

아웃바운드 TM 9243원으로 가장 높아

지난해 하반기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평균시급은 6042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알바천국,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함께 하반기 알바천국 사이트에 등록된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104개 업종 77만6501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은 6042원으로 같은 해 상반기 5890원보다 152원, 2013년 하반기 5653원보다는 389원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강남권역(11개 자치구) 평균 시급이 6066원으로 강북권역(14개 자치구) 평균 시급 6023원보다 다소 높았다.

구별로는 서대문구가 6419원으로 시급이 가장 높았다. 이어 영등포구 6303원, 동대문구 6268원, 구로구 6228원, 강남구 6174원이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채용공고수가 가장 많았고 가장 시급이 높은 업종은 아웃바운드 TM이었다.

아르바이트 최다 모집 업종은 음식점으로 6개월간 총 10만8780건(14.5%)의 공고를 냈다. 이어 편의점(9만4103건, 12.9%), 패스트푸드점(6만6860건, 9.2%), 일반주점·호프(6만1720건, 8.5%) 등 순이었다.

시급이 가장 높은 업종은 아웃바운드 TM으로 평균 시급이 9243원이었다. 다음은 영업·마케팅(9150원), 고객상담(8421원), 영화·공연·전시(7753원), 전화주문·접수(7730원) 등이었다.

모집 연령은 20~24세 85.1%(44만5727건), 15~19세 9.3%(4만8141건), 25~29세 3.5%(1만8215건) 등으로 청년층의 비율이 97.9%로 가장 높았다.

/조현정기자

건강한 콩팥을 위해! 세계 콩팥의 날 인 1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대한신장학회 주최로 콩팥의 날 행사가 열렸다. 학회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콩팥건강댄스를 추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6일 민방공훈련 실시

국민안전처가 오는 16일 제397차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장사정포나 미사일 도발 등 공습상황에 대비하는 주민대피훈련으로 전국 읍 이상 지역에서 시행된다. 전국 828개 주요 기관은 비상사태 발생을 가정한 수습훈련을 하며 전국 소방관서 주관으로 주요 상습정체구간에서는 실시간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이 이어진다.

또 훈련 당일 오후 2시 정각에 훈련공습경보가 발령되면 15분간 주민이동이 통제될 예정이다. 주민은 민방위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하대피소나 지하보도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면 된다.

/황재용기자

구직자 "자기소개서 맞춤법 가장 어려워"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 맞춤법을 제일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는 구직자 315명을 대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시 국어실력 어려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4.44%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국어 실력은 '맞춤법'이 36.36%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어 '구어체와 문어체의 구분'(25.0%), '띄어쓰기'(22.73%), '피동·사동 표현'(11.36%), '높임말 사용'(4.55%) 순이었다.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은 '평소에 글을 쓸 일이 없어서'(38.64%)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독서의 부족'(22.73%), '평소 생활 습관'(18.18%), '컴퓨터 사용량이 늘어서'(9.10%), '인터넷을 통해 신조어 또는 축약어를 자주 사용해서'(6.82%) 등이 거론됐다.

한편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국어 능력에 대해 응답자의 40%가 '논리적인 문맥 연결'이라고 답했다. 2위는 '질문 이해 능력'(35.56%), 3위는 '함축 및 요약 능력'(13.33%)이었으며 이밖에 '창의적인 언어구사 능력'(6.67%)과 '각종 문법'(4.44%)이 거론됐다.

/정윤희기자 unique@

인사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과장 김민기 ▲ 국립제주검역소장 홍성진 ▲ 국립목포검역소장 유강희 ▲ 국립포항검역소장 김영선

■ 한국은행

신규 보임

▲ 통화정책국장 허진호 ▲ 금융시장국장 신호순

■ KDB생명

<승진>

◇부사장 ▲CSO 박현수

◇상무 ▲IT실장 김준경

◇상무(보) ▲AM영업부문장 박위권

<전보>

◇본부장

▲서울지역본부 유인환 ▲경기지역본부 권상혁 ▲호부지역본부 어분수 ▲대구지역본부 서정일 ▲AM중앙영업본부 정상오 ▲AM수도권영업본부 정종기 ▲AM ACE영업본부 박은경 ▲AM채널영업본부 손미라 ▲AM마케팅본부 김정석

■ 전력거래소

◇ 보직이동

▲ 정보보안실장 오진수 ▲ 경영지원처 사무관리팀장 김호구

■ 경희대학교

▲ 의무부총장 겸 경희의료원장 임영진

■ 스포츠조선

▲ 경영지원본부장 겸 전략기획팀장 백운기 ▲ 총무팀장 직무대행 이영덕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부원장 신종호 ▲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장 여영주 ▲ 자원전략연구실장 김유전

■ 경북 의성군

▲ 의회사무과장 다빈술 ▲ 기획관장 김혜숙 ▲ 봉양면장 김일선

■ 태백시

4급 승진 ▲ 주민생활지원과장 주기혁

◇ 5급 전보 ▲ 스포츠레저과장 신흥식

◇ 5급 승진 ▲ 황지동장 직무대리 김철등

부고

▲ 최달식씨 별세, 영식(새누리당 신학성 국회의원 보좌관)씨 부친상 = 12일 오전 6시, 경북 구미아성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4일 오전 9시 30분 054-442-5555

▲ 이종혁씨 별세, 이세우(진주외고 교사)·석무(전 상일고 교사)·권우(전 국회 권리관)·장우(시인)씨 부친상, 홍석(전 경남대 교수)씨 장부상, 정연옥(전 제천고 교사)씨 시부상 = 12일 경북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4일 오전 6시 30분 053-200-6464

▲ 최선례씨 별세, 엄병선(모두투어 네트워크 부사장)씨 모친상 = 12일 오전 4시,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4일 오전 8시 02-2290-9442

▲ 마영준 씨 별세, 마임순(신협중앙회 충청지점장)씨 부친상 = 11일, 대전 유성선병원 장례식장, 발인 13일 오전 7시, 042-825-0434

▲ 정정임씨 별세, 박세웅(주)연일 대표이사씨 모친상 = 12일 오전 7시 30분,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032-933-8124, 010-3725-4432

▲ 권순희씨 별세,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씨 장모상 = 11일 오후 4시, 제천서울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 201호실, 발인 13일 오전 9시 043-644-4422

지방세 탈루 신고 포상금 3000만원 → 1억원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서울서 포상금 지급 사례 없어

행정자치부는 현재 3000만원인 지방세 탈루 신고포상금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올해 추진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체납 지방세 징수대책의 하나로 신고포상금을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방세 탈루 신고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 등을 자치단체에 신고, 징수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징수금액의 2~5%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그러나 대부분 개산에 부과되는 지방세 특성상 은닉 제보가 많지 않고 신고포상금 제도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3년 지방세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서울시(본청)에서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1건도 없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3배 이상 올려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추진 방향을 정했다.

신고포상금을 올리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행자부는 향후 지방세법 개정안을 낼 때 이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지방세 탈루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도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전자담배 니코틴액 밀수입 적발 서울본부세관은 12일 니코틴 원액을 밀수입한 계미동포 S씨 등 2명에 대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S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들여온 니코틴 원액 밀수품. /연합뉴스

안덕수 의원 당선 무효

안덕수(사진) 새누리당 국회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이 12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012년 총선에서 적법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안 의원의 회계 책임자 허모(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선거 당시 선거기획사 대표 안모(47)씨에게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컨설팅 비용 165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원을 1182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허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액이 2302만원에 그친 것으로 판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또 대법원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 부분을 무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컨설팅 비용 지급 부분만을 유죄로 판결해 허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했다.

아울러 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수당과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 처리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로 허씨의 징역형이 확정됐으며 이에 안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윤지원기자 hooa@

수난사고 인명구조 훈련 서울 소방재난본부 소속 119 특수구조단 대원들이 12일 서울 한강 동작대교 인근에서 한강 수난사고 합동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습 성희롱·폭언' 여대 교수 솜방망이 징계

학생들과 동료 여교수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폭언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 한 사립여대 교수가 가벼운 징계를 받아 학내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달 열린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을 통보받았다.

A교수는 자신의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나는 '야동'(음란 동영상)을 보는 것보다 (성관계를) 하는 게 더 좋더라"라고 말하는 등 수시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에는 사각팬티 차림으로 "심부름시킬 것이 있다"며 조교를 자신의 연구실로 부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교수는 동료 교수들에게 '꼴통', '돌대가리', '미친X' 등의 폭언도 자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진정서가 접수되고 두 달이 지나서야 성희롱 조사위원회를 여는 등 징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A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한 교수는 "3개월 후면 다시 A교수가 학교로 복귀해 피해자들과 한 공간에 있게 된다"며 "A교수는 정직 상태인데도 얼마 전에 학교에 나타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피해 학생들과 마주칠 수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대형마트 의무 휴업 취소 부당" 대법원에 탄원서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 12일 대형마트에 대한 자치구청의 의무 휴업·영업 제한 처분을 취소한 서울고법 판결을 비판하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신원철 대표의원은 이날 탄원서에서 "서울고법 판결은 경제적 강자인 대형마트에 유리한 결론을 미리 내놓고 거꾸로 끼워 맞추기식 논리를 구성한 것 같은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대기업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탄원서 제출에는 신 대표의원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76명 전원이 참여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대형마트 6개사가 "의무 휴업 영업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대형마트 손을 들어줬다. /조현정기자

이공계 석박사, 대체 군 복무 가능해진다

복지부, 하반기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이공계의 석박사들이 연구중심병원에서 대체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국방부·병무청과 함께 이공계 석박사들이 연구중심병원에서 의료 산업 전문연구요원으로 활동하면서 군 복무를 대체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공계 석박사들은 대학연구기관이나 기업체 연구소 전문연구요원(석·박사)으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다.

연구중심병원은 의료 산업 관련 연구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지난해 서울대·연세대세브란스·고려대 구로·안암·삼성서울·서울아산·아주대·가천의대 길병원 등 10곳이 지정됐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 관련 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하반기에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현정기자

'명동 사채왕' 금품수수 최민호 혐의 부인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전 판사가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최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부분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최씨에게 금품을 건넨 사채업자의 내연녀 한모(58)씨의 진술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최 전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법원·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유재순기자